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5-6월호
2018년



<Chimayo Chapel > Photo by Jeremy Wade Schockley

교민 여러분

문상귀

뉴멕시코 한인회장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이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했습니다. 교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본국에서 들려오는 대북 관계의 반가운 소식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께서도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서로 나누실 텐데요. 아무쪼록 좋은 소식이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뉴멕시코 한인회도 꾸준히 보람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월 1일부터 한인회 어버이회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무료 차량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후원해주시고 봉사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행사는 매년 열리는 아시안 페스티벌이 5월 6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어버이회 야유회와 6.25를 기념하여 참전용사들을 초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11월에 있을 한인회장 선거를 위해 6월 3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의 임기부터는 4월이 아닌 연말에 임기를 마치고 새 임원단이 새해를 시작하도록 정관을 수정하였습니다. 항상 한인회에 관심과 후원을 해주시는 교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내용 CONTENTS

- 한인회소식 | 교민여러분 | 문상귀 :1
- 한인회소식 | 어버이회 소식 | 유금님 : 2
- 지역사회소식 | 지역사회 지난 소식 :3-7
- 지역사회소식 | 뉴멕시코 교회 소식 :8
- 칼럼 | 넓힙시다. 넓혀야 합니다. | 김기찬: 9
- 수필 | 사제와의 인연 | 이정길 : 10
- 수필 | 백암정담 |정해창 : 11
- 수필 | 내가 제일 잘 났다 |이명길 :13
- 생활상식 | 행복한 미국생활 #18(Health Care) : 15
- 신앙생활 |주를 양모하는 자 #5| 김준호 : 16
- 교계소식 | 2018년 KUMC한인총회의 4일 | 한승우 : 18
- 기도문 | 기도 |김숙경 :19
- 법률논평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 문제 | 노영준 :20
- 여행 | 뉴질랜드 기행문 |이경화 :22
-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교회 안내 : 25
-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업소 : 26-27

한인회 어버이회 회장 인사말

유금님

뉴멕시코 한인회
어버이회 회장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한인회 어버이회 회장이 되었는데 노인 중에서 회장이 된 것은 첫 번째입니다. 이전에는 어버이회에서 봉사하는 젊은 분이 맡아서 모든 걸 다 했는데 이번에는 노인 들 중에서 뽑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일생에 회장이란 직분은 처음이라 사실은 부담이 큼니다. 하지만 주어진 일이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알버커키에 온 지 몇 년밖에 안 되지만 살면서 이 곳의 노인 분들에 너무 살기 좋은 것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일기 좋고 운전하기 쉽고 무릎 아픈 분들은 저절로 낫는다고 합니다. 또한 모기가 없다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 그런지 제가 아는 친구 친지들이 한 번 다녀 간 후 이 곳에 이사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반가운 일입니다.

한국 분들이 많지 않으니 서로가 한 집안 같고 친척 같습니다. 매주 한 번이라도 만나 정답게 대하니 정말 하늘나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30에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혹 차편이

필요하시면 이명길 목사님(전화 (505) 760-3614)께 연락하시면 왕복 다 모셔다 드립니다. 점심 전 간단한 운동 후 점심 함께 나무며 이야기하는 일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우리 노인들을 위해 봉사자들은 매주 수요일 전일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저들이 아마도 돌아가신 부모님, 살아 계셔도 못 모시는 그리움을 우리 어버이회 봉사로 대신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저들의 효심에 감동합니다. 늘 격려해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다른 주에 사시면서도 알버커키에 친지나 자녀들 방문 오신 분들도 여기 오십니다. 오시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씨에틀에서 오신 분이 떡을 해서 버스 타고 오셔서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후에도 가끔 오십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한인회에서는 골프 대회를 열어 어버이 회원들을 위한 관광 기금을 마련한다 하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혹 그 때 못 가신다 할지라도 한인회 임원들의 이런 노력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기 힘들고 살벌한 요즘 여기 알버커키에서 오순도순 정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있어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여기 오기까지 대 도시에서만 살아와서 그 동안 못 가졌던 감동을 이곳에서 갖게 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회원 들은 이사 오시는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친척들은 물론이고 혹 방문하신 경우에도 수요일 어버이회를 꼭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bout the Photographer of the Cover Image:

표지 사진 작가 소개:

광야의 소리 표지에 올린 Chimayo Chapel 사진을 제공해주신 사진작가 Jeremy Schockley씨에게 감사드리면서 작가 소개를 영문으로 올립니다.

Jeremy Wade Schockley (b.1977) is an award winning photojournalist. He has garnered numerous awards from the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the Native American Journalism Association and Colorado Press Association. His images were appeared in publications including WorldView Magazine, New Mexico Magazine and National Geographic. His work is regularly featured at the Open Shutter Gallery, Durango, Colorado.

His website: <https://www.jeremywadeshockley.com>



Yummi House

雅緻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 삼선짬뽕

해물탕면 / 다섯가지 냉채

간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탕수우육 / 양장피 잡채

뉴멕시코 지역사회 지난소식 (3월-4월)

뉴멕시코 순회영사 업무 총 80건 처리



뉴멕시코주 한인회관에서 3월 13일(화)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까지 영사 업무를 실시했다.

윤재수 영사(순회 영사 및 재외선거 담당), 권용석 행정관, 변영희 행정관이 업무를 담당했다.

이번 순회 영사업무는 여권 관련 14건, 재외국민등록 1건, 재외국민 등본 발급 6건, 위임장 7건, 인감 위임장 5건,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28건, 국적 상실 3건, 국적 이탈 3건을 보았고 복수국적 발견 통보 2건, 여권 무효처리 2건 등의 각종 상담 13건으로 총 80건을 처리했다.

3월 12일(월) 저녁에는 사무라이에서 영사, 임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간담회를 했다. 앞으로의 한인회 행사 특히 김치 축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국적 상실, 국적 회복, 이중국적에 대한 질문을 나눴다. 매번 영사업무가 늘어나고 있어 업무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업무에서는 업무지인 앨버커키에서 먼 거리인 클로비스, 로스앨러모스에서도 업무를 보러 왔다. 가장 멀게는 콜로라도 두랭고에서 온 가족이 와 여권 연장 업무를 보았다. 덴버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도 원거리 영사업무가 있지만, 거리상으로 더 가까워 앨버커키로 찾아 왔다고 하며 한인회 홈페이지에서 미리 자세히 안내해 주어서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이번 업무에서 국적 상실, 국적 이탈, 복수 국적에 관한 업무가 여러 건 있었는데 미국 시민권자는 원칙적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만65세 이상 시민권자는 이중국적이 가능하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만 18세 되는 해 3월 30일까지 서류상으로 국적 이탈을 해야 한다. Source: AZ times 2018-3-14

앨버커키 자동차 절도 범죄 상승

앨버커키 경찰청의 Harold Medina는 인터뷰에서 “도난 당한 자동차는 여러가지 범죄 사건에 연루된 교통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했다.

앨버커키에서 자동차 절도 범죄는 무장 강도, 절도, 주거 침입, 마약 범죄와 함께 2013년 이래 3배 이상 급상승하고 있다. 2013년에는 2743건이었는데 비해 작년은 7684건이나 되었다. 2016년은 7710 건으로 작년보다 더 높은 건수를 보였다.

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 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앨버커키의 자동차 절도 범죄는 도시 인구에 비교했을때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만명 인구당 1114건이라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FBI 통계 자료로 텍사스 오스틴의 경우를 예로 보면 오스틴은 앨버커키의 두배의 인구지만 자동차 절도 범죄는 앨버커키보다 훨씬 적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훔친 자동차는 상당수가 남쪽 멕시코로 넘어가고 있고 절도범 중에는 자동차를 분해해 부품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자동차 도난을 예방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Arizona Times 3-21 에서 전재)



Sushi Hama

Japanese Restaurant & Sushi Bar

5:00-8:00 P.M. Daily

식당비즈니스를
매매합니다

505-293-6055

2918 Eubank NE

Albuquerque, NM 87111

(Corner of Eubank and Candelaria)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n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보험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뉴멕시코 지역사회 지난소식 (3월-4월)

성 금요일 치마요성당 순례자들로 성황



(Photo from KRQE News (2018/3/30) Screen Captured)

금년도 부활절 직전 성(聖) 금요일 Good Friday에는 산타페 북쪽에 있는 치마요(Chimayo) 성지를 찾는 연중순례의 행렬에 수천 명의 가톨릭신자들이 참여했다.

Holy Week이라고도 하는 고난주간에 있는 치마요성당 순례는 200년 전부터 시작된 산타페지역의 전통이다. 매년 종려주일(Palm Sunday)부터 시작 부활주일(Easter)까지 한주일 기간에 약 3만명의 순례자가 성지 치마요에 있는 작은 채플 성당을 방문한다.

치마요성당의 정식이름은 엘 산투아리오 데 치마요 (El Santuario de Chimayo)로 순례자들이 찾는 성당이 된 이유는 기적과 치유의 장소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순례자는 약 30 마일 떨어진 산타페(Santa Fe)에서 걸어 올라가거나 10 마일 떨어진 에스파놀라 (Española)에서 걸어가기도 하고 치마요 근처까지 자동차로 가서 남은 수마일을 걸어가기도 한다. 에스파놀라와 치마요 사이를 특별운행하는 RTD 블루버스(Blue Bus) 운행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30분간격으로 추가운행해 성 금요일의 급증한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많은 경찰을 순례행렬이 있는 도로에 배치해 순례자의 안전을 도왔다.

순례자들은 순례를 통해 기도드리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 본다. 성당을 방문하는 사람 중에 병고침 치유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온 사람은 성당 안 제단 옆 El Pocito (번역하면 작은 우물)라는 방에 들어가서 성스러운 치유의 흙(Holy Dirt)을 손에 바른다는 담아가기도 했다. 쫓불이 켜있는 El Pocito 방에 들어가면 바닥 가운데 작은 우물같이 구멍을 내고 흙을 노출해 성스러운 흙을 조금씩 가져갈 수 있게 해두었다. 순례자 중에는 여기서 모래나 흙을 떠서 몸에 바르거나 문지르고 기적적인 치유를 받았다는 증언들을하고 있다. (Arizona Times 2018-4-4 에서 전제)

어버이회 무료차량 서비스 운행 시작

3월21일 어버이회 수요일모임에서 문상귀 뉴멕시코 한인회장은 어버이회 모임에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차량 운행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은 알버커키 한인연합감리교회(김기천 목사)에서 차량선교로 사용하는 7인승 혼다 오딧세이 미니 밴으로 어버이회 회장인 유금님, 박영교 씨 내외가 연합감리교회에 기증한 차량이다. 기증을 계기로 어버이회를 위한 차량운행이 가능해졌다.

차량 정비에 있어서는 마이크 조 장로가 운영하는 The Garage (www.thegaragenm.com) 의 도움이 컸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차량의 정비상태를 총 점검하고 필요한 수리를 무료로 서비스 해주었다. \$1000여불의 수리비에 해당되는 In-Kind 도네이션을 해 주심으로서 교회가 부담해야할 차량유지비에 큰 도움이 됐다. 운전으로 봉사할 이명길 원로목사는 오랫동안 중국선교사로 일했고 최근에는 한인회 어버이회를 위해 여러가지로 봉사를 해오던 중 지역사회를 위한 차량 봉사도 맡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매주 수요일 한인회가 제공하는 어버이회 점심식사에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어 모임이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길 원로목사는 무료차량 서비스 대상은 앨버커키시 거주자인 노인에 한하며 차량이 필요한 이는 한인회관에 준비된 양식에 성명, 영어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해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차량은 매주 수요일 신청인 가정에서 한인회관, 한인회관에서 신청인 가정까지 운행하며 4월 첫 수요일부터 시작한다. 신청서 제출 및 연락처는 이명길 목사(전화: 505-717-2590(주택), 505-730-3614(핸드폰)에게로 하면 된다. <아리조나 타임즈 뉴멕시코 소식에서 일부전제>



이명길 목사



유금님권사, 박영교권사



마이크조 장로



광야의 소리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voiceofnm

voiceofnm.kumcabq.com

뉴멕시코 지역사회 지난소식 (3월-4월)

뉴멕시코 결핵퇴치에 높은 성과 보여

지난 3월24일 토요일은 세계결핵의 날 (World Tuberculosis Day)로 결핵이 위험한 병인 것을 대중이 인식하게 하려고 제정한 날이다. 결핵(結核)은 미코박테리움 결핵균에 의해 감염되며 일반적으로 폐에 잘 걸리는 데 환자의 기침, 콧물, 가래로부터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 많은 경우 결핵에 걸려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확실한 진단은 혈액검사, 투베르쿨린 피부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



〈사진은 뉴멕시코 보건부 Lynn Gallagher 씨가 결핵퇴치성과에 대해 발표 중이다.〉

한국에서는 이날이 결핵예방의 날로도 정해져 있어 여러가지 기념행사와 이벤트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한국은 OECD 국가중 매년 3만 명 이상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결핵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결핵퇴치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뉴멕시코는 결핵퇴치에 있어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소식을 뉴멕시코주 보건부(NMDOH: NM Department of Health)에서 발표했다.1996년에서 2017년까지 결핵 발생률이 66% 감소했다는 소식이다. 2017년 전염성 결핵(Infectious TB) 환자발생은 37명으로 21년 전의 89명 보다 현저히 줄었다고 뉴멕시코대학 프로젝트 ECHO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뉴멕시코 보건부비서인 Lynn Gallagher 씨가 발표했다. TB(결핵) 발생률은 뉴멕시코의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가장 낮은 발생률을 보이며 미국 내 어디에 비교해도 낮다고 한다.

Gallagher 씨는 주보건부의 결핵원거리ECHO 진료와 UNM 대학의 Project ECHO가 파트너로서 뉴멕시코의 결핵치료에 협력하여 온지 만 3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Project ECHO는 원거리 건강관리기반으로 Extension for Community Healthcare Outcomes의 약자이다. 인터넷을 통해서 병원시설과 인력이 취약한 지역에 의학적인 또는 공중건강에 관해 전문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에게 효과적인 진료를 가능케 해주는 프로젝트로 개발되었다.

UNM의Project ECHO Director인Sanjeev Arora 박사는 Project ECHO가 원래 14년 전에 C형 간염(Hepatitis C) 환자진료를 위해 시작한 것인데 이 프로젝트가 계속 확장되어 지금은 약 40여 종의 질병치료에 기여하게 됐다고 했다. UNM의Project ECHO에는 15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있고 이중에는 한승우, 김다윗, 임제니퍼, 마민옥(Jodi Melin) 네 명의 한인도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부활절 찬양예배 지역주민 초청

뉴멕시코 알버커키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김기천목사)에서 4월 1일 주일 오전예배를 부활의 감격을 노래하는 부활절 찬양예배로 이 지역 교인들과 지역주민들을 초청했다. 본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찬양과 기악연주, 김은지 자매의 바이올린독주, 본 교회 성가대 이태길목사의 지휘와 박영신집사의 반주로 한국 작곡가의 은혜로운 찬양곡을 연주하여 참여한 청중들을 은혜와 감동속으로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찬가를 연주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찬양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교회측은 부활주일 만찬을 준비하여 참여한 모든 분들을 대접하는 더욱 의미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복불복 탁구대회 개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에서는 교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사회봉사부(부장:이철수 권사) 주최로 복불복 탁구대회를 4월15일 오후 4시 본 교회 친교실에서 개최했다. 이 탁구대회에서는 탁구 외에도 오재미 던지기, 컬링등의 게임이 병행으로 진행되었다. 준비하신 이철수권사, 박선희 집사와 치어리더, 디저트, 도넛, 음식준비를 한 여선교회팀 모두 수고하신 보람이 있는 즐거운 시간을 갖었다고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뉴멕시코 지역사회 지난소식 (3월-4월)

알버커키 가톨릭 공동체 소식

지난달 켈럽에 계시는 소피아 수녀님이 운영하시는 피정의 집에 세월이 오랜된 건물이 낡아 지붕이 새는 일이 생겼습니다. 수리비로 12000불이 든다고 하는데 켈럽 교구에서 8000불정도의 예산밖에서 지원이 안된다고 수녀님께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스텔라 사목회장은 그내용을 공동체 구성원들과 의논을 했고, 저희 공동체에서는 수녀님을 도와드리자는 의견이 모여 모금을 시작했고 2주일만에 \$3500불을 만들었습니다. 수녀님도 놀라고 저희공동체도 놀라고 했는데 수녀님께 모금액을 전해주기 며칠전에 500불이 더 들어와 정확히 \$4000을 보내드릴수 있었습니다.

-----수녀님의 감사 편지 -----

주님안에 사랑하고 존경하옵는 ABQ 형제 자매님들께,
하느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 되는 줄을 알지만 특히 가장 소외되고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오는 해결 되지 않은 아픔과 슬픔의 역사를 안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더 진하게 표현 되어 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능력없고 보잘 것 없는 당신의 여종을 도구로 쓰시고자 하셨으니 하느님께서 손발을 걷어 붙치고 도와 주시기로 하셨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가난한 Gallup교구의 소속인 피정의 집 책임자로 소임을 받고 와서 첫 번째로 제가 마음이 가는 곳은 가슴속에 맺혀 있는 아픔, 한들을 해결할 길이 없어 술과 마약으로 많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 때 돌아다니는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찾게 해 주고 자신들의 아픔들로 부터 치유 받고 해방 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이 곳 피정의 집으로 옮겨온 뒤로 제가 직면하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제가 하고 싶은 일들에서 발을 묶어 놓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마다 지붕의 조각들이 날아 가고 창문들은 그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 비가 오면 온통 비가 새고 있는 등 급하게 손을 보아야 할 일들 때문에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은 점점 뒤로 밀려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이렇게 ABQ 공동체 식구들을 만나게 해 주셨고 또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 이런 가장 소외된 이들을 위한 봉사와 헌신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고마운 마음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ABQ 공동체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생활 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신부님들의 도움으로 ABQ 공동체가 깨어 있으면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 차리고 또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실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지난 세월에 사목을 해 주신 신부님들과 지금 현재 도움을 주고 계신 최경식 야고보 신부님께도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 안에 한 형제 자매로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아시안 페어 식당 새 주소로 옮겨



앨버커키 다운타운에서 3년 넘게 운영해온 한국식당 ‘아시안 페어(Asian Pear:대표 김은진 씨)’는 영업 장소를 최근 새 주소로 이전하고 Soft Opening을 했다. 새로 이전한 식당 주소는 8101 San Pedro Dr. NE Ste D. Albuquerque, NM87113이다. Paseo Del Norte와 San Pedro 네거리에서 서북쪽 코너에 있는 상가에 속한 식당이 된다.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Subway 샌드위치식당과 Starbucks커피숍이 영업해 오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새로 이사한 뒤 식당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1시-오후 8시) 열고 일요일은 쉰다. 상세한 점은 전화: 505-766-9405 또는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sianPearAbq>, 또는 옐프: <https://www.yelp.com/biz/asian-pear-albuquerque> 에서 얻을 수 있다.

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함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피정의 집을 찾아 와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도 크게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 용서와 치유 새로운 희망으로 아픔의 역사를 바꾸고자 작은 씨앗 하나 뿌리는데 참여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어 주시고 함께 손잡고 이 여정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사공지사항-----

6월 한국어 미사는 6월 17일 일요일 정연우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집전해 주십니다.

최경식 야고보 신부님께서 5월 중순 비자갱신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시는 관계로 시카고에서 학업중인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대신 방문할 예정입니다.

6월17일에 오셔서 19일에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드림

뉴멕시코 지역사회 지난소식 (3월-4월)

남북 정상회담의 노래가 된 '고향의 봄'



4월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의 환영 만찬장에서 '제주소년' 오연준군(13세)은 남북 정상 부부와 양측 수행원 등 60 여명을 앞에 두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고향의 봄' 두 곡을 불렀다. 이설주 여사는 오군이 노래하는 내내 노래에 호응하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군이 북측에서도 잘 아는 동요인 '고향의 봄'을 부르자 더욱 감명받는 모습이었다. 남북정상회담 내내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도 노래를 따라불렀다.

환영만찬을 소개한 한국의 뉴스토마토는 기사제목을 <김정은·리설주·김여정 녹인 '고향의 봄'>이라고 달았고 OhmyNews에서는 <노래 '고향의 봄'... 살짝 따라하는 김여정, 흐뭇한 리설주>라고제목을 부쳤다 연합뉴스TV에서는 <'고향의 봄' 따라부른 리설주 여사...하나된 남북>이란 제목아래 역사적인 하루를 보낸 남과 북을 더욱 아름답게 이어준 것은 문화 예술 공연이었습니다라고 설명을부쳤다.

환송행사는 저녁 9시쯤 환영 만찬을 끝낸후 평화의 집 벽을



남북정상회담 VOA Korea의 보도



4월27일 판문점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VOA 한국어 방송을 현장에서 회담 소식을 전했다. 미국의 소리VOA 한국어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8일 전화통화를 하고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이 미국과 긴밀히 조율한 데 대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북한의 평화와 번영하는 미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달려있음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도 역사적인 미북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해 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잘 통할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말했다고VOA 한국어 방송이 보도했다.

스크린으로한 영상과 한국적인 사물놀이와 정재일씨의 피아노의 협연에 오케스트라와 합창을 접목한 “하나의 봄”이란 제목의 영상쇼 감상으로 이어졌다.

퓨전음악 작곡가이자 연주자 정재일씨가 중앙 무대 위 피아노를 맡아 ‘아리랑’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아쟁 등 국악기와 오케스트라 선율에 맞춰 협연했다. 우리 역사의 희로애락을 ‘아리랑’으로, 고단했던 삶은 ‘새야 새야 파랑새야’로 표현했다고 한다. “하나의 봄” 영상쇼는 결론으로 동요 ‘고향의 봄’으로 마무리했다. 앞으로 찾아오는 평화의 새 시대를 ‘고향의 봄’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고향의 봄’은 이원수 아동문학가가 문학에 데뷔하기전 15세때 1925년에 발표한 동요인데 1929년 작곡가 흥란파의 작곡으로 곡을 붙인후 널리 알려진 노래가 되었다.

뉴멕시코 지역 한인교회 소식

클로비스 한인교회 소식

교회창립 27주년을 감사하면서 준비한 지난 4월 13일부터의 부흥회와 4월 15일의 권사 취임식을 잘 치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뉴멕시코 한인회 문상귀 회장과 사무총장님, 무용단장님 등 4분이 오셔서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클로비스 한인 교회에서는 5월 13일 Mother's Day에 야외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은 해마다 1박2일이나 2박3일의 일정으로 멀리 단체 캠핑을 갔었는데, 멀리 이동하는 문제와 텐트나 캠핑카에서 숙박하는 일로 인해 나이드신 분들은 참여하지 못해서, 올해는 클로비스 북쪽 10마일 정도 떨어져 위치한 Ned Houk Memorial Park으로 당일 일정으로 갈 예정입니다.

또한 6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미국 남침례회 국제코칭대표이신 석정문 목사님을 초청하여 주일예배를 드리고, 작년에 이어 두번째 석정문목사님과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울러 텍사스주 아마릴로와 러복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과의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18-20일 석정문목사님과의 코칭세미나를 하는데, 알버커키의 목사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참여하셔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산타페 한인교회 소식

산타페 한인교회는 먼저 5월 첫째주(6일)를 아버지 주일로 지키려 계획하고 있다. 한인 1세대로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의 삶을 살아오신 아버지들을 주안에서 위로하는 시간들을 가지려 계획하고 있다. 11시 30분 화이트락 예배당에서 연합예배로 모이며, 주일 카네이션 달아들이기, 어린이 감사특송, 봉사, 치마요 레스토랑에서 점심대접 등이 계획되어 있다. 두번째로 7월 첫째주(2일-7일)에 LA에 있는 선한청지기교회(송병주목사 담임)와 연합으로 나바호 인디언선교와 연합 VBS를 준비하고 있다. LA에서 온 팀들과 산타페 교회 팀들이 나바호 인디언선교센터(이덕재선교사)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 청소년 캠프, 각종 봉사활동(한방, 미용, 베이커리...) 등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선교센터의 위치는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선한청지기교회는 790마일 떨어져 있으며, 산타페 한인교회에서는 98마일 떨어져 있다. 특히 나바호 인디언 청소년들은 부모들이 중독자인 경우가 많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다. 이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는 일들을 두 교회 연합으로 진행하려 한다. 연합 VBS는 작년과 동일하게 선한청지기교회의 아동부 담당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산타페 교회 화이트락 예배당(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으로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예정이며, 작년에는 20여명의 한인 어린이들이 참가 했었다. 두 교회가 긴밀하게 연합하는 프로그램들을 기도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문의: 산타페한인교회 담임, 김석훈목사 626-272-1042)



넓힙시다. 넓혀야 합니다.

몇 주 전인가 예배가 끝났는데 이경화 장로님이 오셔서 주차장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예배 중에 나가보니 주차장이 모자라서 교회 뒤편 맨땅에 주차하는 차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가보니 사실 교회 놀이터 뒤편까지 차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알버커키는 비가 자주 안와서 괜찮지만 비라도 오면 맨땅에 주차할 경우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재단 이사회에 상정되어 교회 뒤편에 차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자갈이라도 깔아놓자는 의견으로 결정을 보았지요. 교회가 그동안 성장해 왔음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역사에 대해서 종종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때에는 미국교회 빌려서 사용하곤 했었지요. 세 들어 사는 처지라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나 모임도 본 미국교회가 우선이었고 미국교회의 예배나 모임이 없는 빈 시간에 예배드리고 모임을 가져야 했었습니다. 김치냄새가 나는 한국 식사를 교회에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의 짓궂음은 장난 때문에 미국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지금의 교회를 건축했지요. 아마도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을 당시 모든 교인들은 우리 교회 자체 건물을 가졌다는 자부심으로 감격했을 것입니다. 제가 본 교회에 부임한 것은 2004년이니 이미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 저기 좁은 부분이 생겨났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교실들이 부족했고 친교실 또한 주일 예배 후에 모두 모여 점심 식사를 하기에 좁아졌습니다. 건물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진 것이지요. 건물을 넓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김준호 장로님을 위원장으로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교회 정면에서 볼 때 좌우로 대칭이 되도록 친교실도 넓히고 교실들도 증축하였지요. 이때 정면에서 오른쪽에 있던 놀이터는 건물 뒤쪽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물건을 쌓아 둘 창고가 없어서 천장 위에 잡다한 물건들을 올려놓았던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교회 뒤에 두 개의 창고가 들어서서 여러 물건들을 넉넉하게 쌓아둘 수 있지요.

요즘 다시 고개를 드는 문제가 주일학교 교실과 친교실입니다. 얼마 전 이해리 교장 선생님께서 주일학교 교실 부족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부활절 경우에는 점심식사 때 친교실이 부족해서 젊은 사람들은 교실로 옮겨서 식사를 해야 했지요. 어떤 때는 주일 예배를 위한 자리도 부족해서 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지요. 또 다시 넓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정해진 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땅 위에 건물들이 넓어지고 늘어나는 것은 보기만 해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지요. 그것은 건물보다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건물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 먹어가면서 마음을 넓히는 것 또한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장은 건물을 넓히는 것보다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사람하나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좁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느 누구나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넓힙시다. 당연히 넓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더 크게 넓힙시다. 갑자기 지난 주 성경구절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누가복음 13장 21절)” ■

Mi Kyong Kim

Mortgage Banker
NMLS #512561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3900 Vassar Dr NE
Albuquerque, New Mexico 87107
www.bankofalbuquerque.com/mikyongkim
E-Mail mkim@bokf.com
Direct 505.855.0586
Mobile 505.379.2944
Fax 505.855.7301



김미경

주택융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사제와의 인연

“미사를 올리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분 거리에 있는 성당을 찾아두었습니다.” 아침에 루피노 씨가 제의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천주교 성당’ 이라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늘 마음 속에 두고 지내던 이름. 추수 감사절이면 애들과 함께 찾고는 했던 파고사 스프링스에 이런 이름의 성당이 있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루피노 씨 내외와 함께 사흘을 편히 쉬고, 주일 미사를 봉헌한 뒤 돌아오는 길은 유달랐다. 나도 모르는 사이, 생각이 50년 전을 더듬는다. 신자가 아닌 나는 유아 영세자와 결혼하려고 나주 성당 주임 신부를 찾아가 관면을 받았다.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중에 신자가 되겠다는 내 다짐을 받은 신부가 주례를 서 주었다. 후덕한 인상의 신부는, 성당의 유치원에서 열린 혼인식을 마치고 사진을 촬영하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기도 했다. “여기 신부가 둘인데 어떤 신부가 더 예쁘니까?”

공항에서 나를 태우고 샌마크스 칼리지로 데려간 맥그레거 신부는, 4년 뒤 귀국하는 나를 바로 그 공항에서 배웅해주었다. 퀸슬랜드 주의 타운스빌. 사진 한 장을 들고 나에게 다가와 사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 샌마크스는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로 남녀 합하여 130명의 학생들이 기숙하고 있다고 했다. 나의 신상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다보니 어느덧 기숙사에 당도했다. 1층이라더니 데리고 올라간 2층의 방에서 짐을 풀면서야, 영국식으로는 1층을 아래층이라고 부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자동차도 왼쪽 길을 운행하고 있었다.

맥그레거 신부님은 최소한의 생활비만 받으면서, 학생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번기가 막히면 청소하는 사람들을 제쳐두고 직접 처리하는 사감. 때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며 식탁에 앉아 있는 학생들의 커피며 차를 취향에 맞게 타다 주는 어른. 행동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주말도 휴가도 없이 일하는 내가 걱정되어 쉬어가며 일하라고 늘 주의를 주었다. 이발소에 다녀온 날이면 왜 이발료가 양 한마리의 털을 깎는 샅보다 더 비싼지 모르겠다며 웃겼다. 스물두 살 청년의 장례식에 다녀와서는, 사람의 명이 미리 정해진 것인가 묻는 나에게 그 청년은 교통 사고로 죽었다고 일러 주신 분이다.

떠나 있는 사이 애들을 둘 다 신자로 만든 아내는, 내가 돌아오자 나를 신자로 만들기에 정성을 쏟았다. 부활절이나 성탄절 미사에 데려가다가 하면, 성지 순례에 동참하게 만들어 신심을 불어 넣으려고 애썼다. 한국 천주 교회 200주년이 되는 1984년 여름에는 ‘평화의 사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을 방문했다. 광주 무등 경기장에서 교황이 영세를 주는 일정도 잡혀 있었다. 교회마다 한 사람씩 추천하여 영세하도록 했는데, 성지 순례 사진에서 나를 몇 번 본 계림동 성당 장 신부가 아내와 상의하여 끼워 넣는 바람에 신자가 되었다.

광주에서는 공식 행사장에 가기 전에 5·18의 상징인 금남로와 전라남도 도청을 방문하여 5월의 영혼들을 위로하신 교황. 훌륭한 종교 지도자로 평가 받던 분이다. 계림동 성당에서는 ‘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이 땅에 빛을!’ 기념하자고, 미소 짓는 손바닥만한 교황의 사진 뒤에 달력을 넣어 나누어주었다. 나는 그 5년 뒤인 1989년 1월에 교황님을 로마에서 다시 만난다. 계림동 성당 성지 순례단에 들어 베드로 성당에서 미사를 올리고 천견의 영광까지 누리던 것이다. 빙그시 웃는 모습의 사진이 어디나 나를 따라 다닌다.

1957년부터 우리 나라에서 사목 활동을 해온 아일랜드 출신 천노엘 신부. 광주 무등 갯생원에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지역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고 가정이나 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지적 장애인들을 보고는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깊은 생각에 빠진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를 돌며 그곳 장애인들의 생활을 살핀 다음, 1981년에 무등 갯생원에서 함께 봉사하던 두 사람과 의논하여 남구 월산동에 있는 한 주택을 빌려 ‘그룹홈’을 만든다.

지적 장애인도 사회에 적응하면 어느 사람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었던 그의 소원은, 1985년에 사회 복지 법인의 인가를 받아 지역 사회 재할 시설인 엠마우스 복지관을 만들면서 이루어진다. 천 신부님을 만난 건 그 무렵이었다. 천사를 만났던 것이다. 부활절이나 추석 명절



KBS TV “사랑의 가족”에 방영된 천노엘 신부
<https://www.youtube.com/watch?v=S21dy1wj2g>

뒤에 단 몇 시간이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집에 오시라는 요청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이고는 하던 천진스런 얼굴이 눈에 선하다. 복지관은 지금 16개의 그룹홈을 운영한다.

게으름에 찌든 나는 형편없는 신자다. 착한 양으로 만들어 보려고 무진 애를 쓴 아내와 장 신부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 때도 많다. 불완전하지만 인간적인 삶을 충실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도 못하고 있는 나. 한 인간으로 하느님의 온전한 사랑 속에 존재하면서 할 일은 제대로 못하는 열치기 신자다. ■

백암 정담



정해창

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내 기억으로는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처음 세워진 것이 1960년대 말쯤이 아니었나 싶다. 연탄을 사용하던 아파트였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알버키에서 돌아와 부모님이 사시던 집에서 형님 내외분과 잠시 함께 지내다 과천의 한 아파트로 전세를 얻어 나갔다. 그게 1984년의 일이다. 그 때는 이미 아파트가 일반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 적어도 도시에서는 그랬다. 나는 이후 직장 사택에서 몇 년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남들처럼 계속 아파트에서 살았다. 허나 늘 마음 한구석에는 시골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속병처럼 들어 있었다. 그러던 차에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친구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한마디로, 너무 부러웠다. 이 친구 말인 즉 저지르지 않으면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내게는 저지르만한 경제력이 없었지만 다행히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그만 땅이 고향(백암면 대흥동 마을)에 있었다. 남향이 아니어서 입지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우여곡절 끝에 조그마한 나무집을 마련해서 살기 시작하여 이제 13년이 되었다.

50여 년 전에는 서울에서 편지를 부치면 백암에 도달하는데 최소한 3,4일은 걸렸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대흥동은 백암에서 십리길이나 떨어진 곳이라서 거기다가 하루 이틀쯤 더해야 했다. 전화도 없었으니 부고장 같은 것은 사망 날짜로부터 일주일이나 지나 배달되기도 했다. 급하면 인편에 편지를 보내던 시절이었다. 나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백암을 여러 번 방문했었다. 간혹 낮이 짧은 겨울철에는 어둑컴컴한 새벽에 서울 집을 나서야 해지기 전에 돌아올 수 있었다. 용산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수원, 용인, 양지 거쳐서 백암에 도착하면 이럭저럭 점심 때 쯤 되었다. 당시 버스는 대체로 완행 버스였고 정거장도 따로 없었다. 서울-수원을 제외하고는 도로가 비포장이었으니 몇 시간 시달리고 나면 몸과 마음이 함께 후줄근해지곤 했다. 게다가 수명이 다한 미군 트럭의 엔진을 재생하여 사용한 버스는 고장 나기 일쑤였다. 길가에서 손을 들면 태워주었고 또 승객이 원하면 아무데서나 내려주곤 했다. 서울에서 백암까지 가는데 서너 시간은 족히 걸렸다.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대흥동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현재 대흥동에는 십여 가구가 웅기종기 모여 살고 있다. 그 중 절반은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다. 서울에서 승용차로 한 시간 거리 밖에 되지 않는데도 1970년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오지이다. 동네가 너무 조용해서 어쩌다 들르는 사람들은 절간에 온 것 같다고 했다. 이런 환경에 몇 년 익숙해지다 보니 아파트에 가면 바로 불편해진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하루 이틀 지낸 적이 있는데 불빛과 소음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가 없었다. 십여 년 만에 시골 사람 다 된 것이다. 그런데 사실 내가 시골 사람임을 확인시켜 주는 곳은 따로 있다. 바로 장터이다. 장터가 재래시장처럼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닻새마다 열리는 장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면 영락없는 시골

노인이다. 고객을 유인하는 이런저런 이벤트에도 가보고 고향 사람과 천막 간이 식당에서 형편없는 안주 곁들여 술 한 잔 곱을 때 비로소 내가 이곳 사람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그런데 요즈음 장터에서는 옛날 장의 정취를 거의 느낄 수가 없다. 매년 같은 장소에 같은 업종의 장사꾼들이 똑같은 물품을 진열해 놓고 있거나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 팔곤 한다. 이들은 트럭에 물품을 싣고 장이 서는 곳을 순회한다. 백암 토박이한테서 들은 말로는 장꾼들이 담합하여 점포의 위치나 상품의 종류를 통제한다고 한다. 그래서 같은 품목으로 새롭게 장터 중심부에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예전에는 요즈음처럼 직업적인 장꾼 속칭 장돌뱅이가 많지는 않았다. 집에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와서 소규모로 파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아직도 할머니들뿐이긴 하지만 좌판 벌려 놓고 제철 채소나 과일을 파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상업적으로 구매할 것과 함께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이 없다. 또한 장날에 무슨 특별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간혹 수수부꾸미 같이 요즈음은 흔히 볼 수 없는 먹거리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너무 반가워 초과 구매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로 장터 바로 옆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에 가면 사실상 살 수 없는 것이 거의 없고 품목에 따라 훨씬 싸게 구입할 수도 있다. 다만 각종 채소 모종은 어김없이 때맞추어 장에 나오기 때문에 나 같은 초보 텃밭농사꾼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한 곳이 장터이다.

아무튼 옛날 장터에서는 왁자지껄한 삶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지만 요즈음은 그저 임시로 서는 시장의 풍경만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있다. 불과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웬만한 면소재지마다 크고 작은 5일장이 서곤 했다. 그렇게나 많던 5일장이 편의점이나 마트가 시골 구석구석까지 들어서면서 점차로 모습을 감추었다. 편의점 뿐이라. 백암면 전체 인구가 만 명 정도이고 그 중 백암은 3천 명 남짓인데 커피숍이 다섯에 다방까지 합치면 커피를 파는 곳만도 아마 스무 군데가 넘지 않나 싶다. 일반의원과 치과의원이 각각 두 곳이고 한의원, 한약방도 세 군데나 있다. 파리바게트, 롯데리아도 들어와 있다. 이 정도니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5일장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사실이 신기할 정도이다. 이제 용인시에는 용인장과 백암장 두 군데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백암장이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이유는 소전거리 또는 우전거리라고 불렀던 우시장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소를 묶어두는 말뚝인 소말장이 수백개씩이나 있었다고 한다.

농민들이 집에서 키운 소 한두 마리 끌고 오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아래 지방 특히 호남에서는 열 마리 이상 차에 싣고 와서 팔기도 했다. 그래서 소 주인과 소가 머무는 소마방이라는 곳도 있었다. 여기에서 거래되지 않은 소는 다시 수원장으로 가져가서 팔았다. 장이 서면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사실상 큰 돈이 도는 곳은 소시장이었다. 자연스럽게 인근에 도축장이 두 곳이나 있었다.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예전에는 소를 잡을 때 커다란 망치로 정수리를 내려치는 그야말로 원시적인 방식을 사용했다. 그 광경은 끔찍했을 것이다. 왜 백정을 천하게 대했는지 짐작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 시절 백정은 푸줏간 주인이기도 했다. 내가 단골로 다니는 푸줏간 주인은 3대 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자신에게서 대가 끊길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푸줏간 집 부인들은 대체로 때깔이 고와 보인다. 이 백암 촌구석(?)에 저런 미인이 다 있나 싶을 정도의 미인도 있다. 땀벌에서 농사일 하느라 피부를 노출 시킬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시절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끼니 때우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푸줏간 집은 잘 먹고 살았기 때문이었는지. 입 하나 덜러고 딸들을 남의 집 식모살이 보내던 시절이었으니 비록 천시했지만 푸줏간 집으로 시집가면 먹고 살 걱정은 없었다.

백암은 순대로 유명하다. 내가 순대국을 처음 먹어본 것도 백암장에서이다. 오래전 아버지의 초등학교 제자 한 분이 백암에서 한의원을 하고 계셨다. 그분은 인품이 훌륭해서 인근에서 널리 존경을 받는 분이였다. 백암에 내려오면 별 일이 없어도 인사를 드리려고 방문하곤 했다. 그분이 이끄는 대로 허름한 초가집에서 순대국을 먹어 보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 옆에 가마솥이 펄펄 끓고 있었고 작은 방에서 대여섯 명이 연신 땀을 흘리며 순대국을 먹고 있었다. 우리가 구석자리에 앉으니 방이 꽉 찼다. 그 때는 색깔도 검고 물컹하게 씹히는 느낌이 싫어서 순대를 골라내고 먹었다. 예상외로 돼지의 꾸릿한 냄새도 없었고 고기가 밥보다 많이 들어 있어서 내가 국밥을 먹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삶은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그 깊은 맛을 알게 되어 나중에는 일부러 순대를 사려고 먼 걸음도 마다하지 않았다. 요즘은 백암 순대는 옛날 맛이 나지 않는다. 요새 사람들 입맛에 맞추느라 담백하게 만들어서 그렇다고 한다.

예전에는 돈이 귀했다.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대 다수가 농업인이었다. 조금 과장하면 우리나라 사람 대다수가 대중 자급자족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시골에서는 좀처럼 돈 구경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사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는 곳이 바로 장터였다. 장날이 되면 수확해 두었던 곡식을 가지고 나와 팔아서 돈을 마련했다. 뭇돈이 될 만한 것은 그래도 쌀이나 고추였다. 남자들은 쌀 한 가마(80kg) 정도를 지게에 지고 십리 길 또는 이십리 길을 걸어서 장터까지 날랐다. 대흥동 아주머니들은 보통 쌀 서 말(30kg)까지 머리에 이고 십리 길을 걸어 장에 내다 팔았다고 한다. 돈이 더 필요하면 하루에 두 번씩이나 그 길을 왕복했다. 그런 고난의 행군(?)을 했어도 아주머니들에게는 장국밥 한 그릇 사먹는 사치도 허락되지 않았다. 장국밥에 막걸리 한잔 걸칠 수 있는 특권은

오로지 가장의 몫이었다. 그 때는 쌀을 구매하러 가는 것을 “쌀 팔러 간다”고 했다.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쌀을 사러가면서 팔러간다고 말할까 의아해 했지만 모두들 그렇게 말하니 그러려니 했다. 고추나 깨와 같은 작물은 대체로 도시에서 온 상인들이 훔터 갔다. 가격도 흥정하기 나름이었고 추가 달려 있는 대저울을 사용하여 무게를 달았다. 무게 때문에 이런저런 시비가 붙는 일은 다반사였다.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어수룩한 농사꾼이 상인의 능숙한 손놀림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농민들에게는 한 푼이 아쉬운 시절이었고 가장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시장은 늘 북적거렸다. 돈이 귀한 때라 물물교환도 이루어졌다. 노동의 댓가도 언제나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복숭아밭에서 일해주고 품삯으로 받은 한 소쿠리의 복숭아를 가지고 와서 팔고 갈 때는 생필품을 사서 머리에 이고 갔다.

장터는 사람을 만나고 정보가 교환되는 곳이기도 했다. 오랜만에 친구, 지인들을 만나서 김치 쪼가리 안주 삼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지역 소식을 나누었다. 사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였지만 그 시절 백암 사람들은 거의가 토박이들이었다. 여러 대에 걸쳐 살면서 혼인, 학교 등으로 엮여 있어서 모두가 모두를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시쳇말로 남의 집 부엌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훔쳤다. 옛날 모두가 땅에 묶여 살아서 이사 갈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농사철이 되면 동네 사람들끼리 품앗이 노동으로 서로 돕고 살았다. 인력에 의지해서 농사를 지었으니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관행이 오랜 세월을 두고 굳어져 버려 지극히 폐쇄적인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 유대감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 부작용이 오늘날까지도 만만치 않게 남아 있다. 한 예를 들면, 이들은 끼리끼리 사이에는 결코 척지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다. 누군가 위법한 짓을 해도 그걸 문제 삼거나 고발하지 않는다. 일단 입 밖에 내면 온 마을, 지역에 순식간에 퍼지고 그 순간부터 원수 사이가 되기 때문이다. 음주 운전 단속도 백암 파출소 경찰이 하지 않고 다른 지역 경찰이 불시에 와서 한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 순식간에 단속 정보를 휴대폰으로 상호간에 전달해 주기 때문이다.

장날은 돈이 도는 날이지만 또한 노름판이 커지는 날이기도 했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현금을 손에 쥔 때는 좋았지만 그 돈을 모두 날리고 빚까지 지는 일이 정말 허다했다. 노름빚 때문에 토지가 날라가고 남의 집 머슴이 되기도 했다. 옛날 시골에서는 겨울 동안 할 일이 없었다. 새끼를 꼬거나 가마니를 짜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봄에서 가을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노동에 찌들었던 농사꾼에게 겨울철 소일거리(?)라고 할 만한 것은 막걸리나 노름이 고작이었다. 나라에서 법으로 금했던 술을 집에서 몰래 만들어 먹다가 적발되어 혼쭐이 나기도 했다. 머슴들도 노름판에 기웃거리지 않고 알뜰히 모은 사람은 나중에 주인집 보다 잘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머슴들은 봄에 파종할 때부터 가을걷이하고 겨울 땔나무까지 해놓고는 세경을

수필

내가 제일 잘 났다



이명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원로목사

지난 2월9일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17일 동안 열렸던 2018년 동계 올림픽은 25일 8시 폐막식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한국은 동계 올림픽 사상 17개의 메달로 세계 7위의 역대 최대 성적을 냈으며 92개 국 2925명의 역대 최다수 선수들이 참여했고 이중 42%의 여성이 참가하여 이것 또한 역대 최대라 한다. 개회식과 폐회식 역시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세계가 열광할 정도로 성공리에 잘 마쳐 송창식 총감독의 인기도 만점이었다. 이런 고국의 올림픽 소식은 외국에 사는 우리 한인 교포들의 가슴을 오랜만에 뿌듯하게 했다.

올림픽 개회식을 보지 못한 필자는 폐회식은 마음먹고 시간을 떼어 즐겁게 보았다. 무엇보다 케이 팝 열창이 인상적이었다. CL(본명 이채린)의 멋진 춤과 열창도 인상적이었지만 “내가 제일 잘났다”는 가사는 참여한 많은 선수들, 대부분의 무 메달 선수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었을 것이다. 케이 팝 가수들이 마이크를 대중에게 내밀자 폐회식에 참석한 선수들과 청중들은 한국말로 일제히 “내가 제일 잘났다”고 따라 외쳤다. 짧지만 외국인들이 어떻게 한국말 가사를 부를 수 있었는지 이국에서 그 광경을 보는 나 또한 몹시 흐뭇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제일 잘 났다”가 아니라 “제일 잘나가” 였다. 재미 한인 교포 1.5세 태미(본명 박홍준)가 작곡하고 2NE1 케이팝 그룹이 부른 “내가 제일 잘 나가”란 가사였다. 그런데도 내 귀에는 “내가 제일 잘 났다”로 들렸으니 말이다. 영어 번역을 보았다. “I am the best.” 그 말이 그 말이였다. 영어는 오히려 “내가 제일 잘 났다”는 의미가 더 가까울 것 같다.

사실 누구나 “내가 제일 잘 났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부러운 것이 없을 것이다. 자기가 선호하는 분야에 “내가 제일”이라는 자신감은 무엇보다도 자기 성취의 큰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성공이란 어쩌면 이런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실현을 통해 이룬 자기 성취일 것이다. 어쩌면 인간이 찾는 가장 바람직한 행복도 이런 자기실현에서 오는 것일지 모른다. 내가 제일 잘난 분야에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으로 내가 제일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보람이며 행복 아니겠는가?

그런데 솔직히 씨엘(CL) 따라 노래는 불렀지만 돌아와 허물어진 자신을 보면 내가 그리 잘나게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초라한 내 모습이 실망스럽고 못난 점들만 보이는 내 인생이 처절하기까지 하다. 잘 나가는 “씨엘”이야 그렇게 노래하겠지만 내 모습은 그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쥐꼬리만한 봉급에 정금 같은 내 인생을 담보하고 경쟁에 지치다 보니 사는 보람은 어디 가고 흘러가는 세월에 고독만 서럽다. 하기가 그런 일자리도 없어 무위도식하는 친구들, 발발거리고 노력해도 뜻대로 되는

일이라곤 없는 청년들의 현실은 잘 났다는 자부심보다 못났다는 생각이 지배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정직하게 자신을 보는 순간 실망과 낙담과 좌절과 고독에 우는 내가 차라리 정직하다. “나는 왜 이리 못 났나” 소리 지르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솔직한 감정이다.

이것이 어찌 한 두 사람들의 현실이라. 때때로 잘 나가던 스타나 최고의 가수들이 경쟁에 실패하고 내리막 길을 가게 될 때 오는 허무감, 패배감에 마약과 술 섹스로 밤을 지새며 자기에게서 도망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려 자살 충동에 몸부림치는 현실인데 따라 부른 노래 한 마디로 치유 될 수 있을까? 내가 따라 부른 노래가 어찌면 온통 거짓말인 나의 허상인데 어찌할까? 무엇이 진정 나란 말인가? 이런 열창과 춤은 왜 내가 잘 난 삶을 살 수 있고 왜 내가 잘 나가는 인생이란 것인지 설명하지 않는다. 혼자만의 자기도취일 수 있다.

요사이 심리학자들은 자기 정체, 자기 발견, 자기실현, 자기 성취, 이런 말을 많이 한다. 각기 개성이 다르게 태어난 사람이 지구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사실은 참 우리를 고독하게 한다. 가치관, 세계관, 삶의 영역이 서로 다른 인간으로 태어나 맡겨진 자기 인생에 대한 무게를 느낄 때 한 없이 외로워지는 것은 당연하며 정상적이다. 내가 내 삶을 개척하며 나만의 세계를 넓혀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인가? 나라는 존재가 너무도 미미하고 초라하여 그만 좌절하고 절망하고 만다. 어떤 사람은 저리 잘 나가는데 나라는 초라한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서글프고 허무하다. 그래서 때때로 웃고 싶기보다 울고 싶은 것이다. 울음이 가식이고 고독이 거짓일까? 필자는 오히려 후자가 자기를 정직하게 보는 것이라 믿고 싶다. 특히 한국 사람처럼 슬픈 노래를 좋아하고 한을 미화하는 민족은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편이다.

20세기 초까지 서구에 만연한 인간 낙관주의는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무너져 버렸다. 인간은 한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무한대의 발전과 세상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인간 만능주의는 포악한 전쟁을 겪으면서 추하고 악한 본질적 실존임을 발견하고 경악하게 된 것이다. 서구의 지성인들은 인간이 얼마나 처절한 실존적 존재인가를 소설로 글로 부르짖었다. 너무나 처참한 인간 실존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을 겪은 지성인들은 그러나 인간을 보다 솔직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실존주의자들에게는 잘난 인간이라는 것이 허상이며 가짜일 수

있음을 알았다.

나는 청년 때 실존주의 소설들을 읽으며 구더기 같은 인간 실존에 동질감을 느꼈다. 그래서 이렇게 처절한 인간 실존을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찾아 헤맸다. 필경은 교회를 찾았고 예수님이 누구이며 왜 세상에 오셨는가를 알게 되고 성경을 즐겨 읽게 되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보이기 시작했다.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문학보다 나에게 분명하고 값진 인생의 의미를 찾아 주었다. 절망적 인간인 내가 “내가 잘 났다”는 선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지금도 나는 내가 못 났고 실망스러움을 솔직히 인정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나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잘 난 인간”임을 동시에 선언할 수 있다. 아니 “내가 제일 못 났는데” “내가 제일 잘 난 존재다” 고 동시에 외칠 수 있다. 왜냐 하면 하나님이 독특하게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삶의 영역을 설정하시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독특한 나만의 인간으로 지으셔서 내가 지금 그 삶의 영역을 나만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제일 잘 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내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제일 잘 난 인생이고 제일 잘 나가는 행복한 존재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내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한다. 인간은 부족하고 유한하며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무능한 실존임을 가르친다. 그런 죄인을 “내가 제일 잘 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짊어진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벗고 삶의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천만 불 아니 “예수님” 짜리 인생으로 구매해주셨다. 그래서 나의 삶은 세상 살 맛이 나는 값진 삶이다. 유일한 나만의 독특한 인생 내 영역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 인생을 내가 잘 살도록 잘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성경은 아무 보잘 것 없는 인생도 계획하시고 설계하셔서 큰

목적을 설정하시고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하셨음을 가르친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명시해 준다. 내가 사람답게 살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처참한 실존들이 새 생명의 노래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내주하는 성스러운 성전임을 경험케 해 준다. 다이아몬드 같은 보배가 내 안에 존재하기에 내 인생은 다이아몬드 인생이다. 함부로 낭비하고 아무렇게나 살다 죽을 무가치한 존재가 아닌 것이다. 질그릇에 담긴 다이아몬드 인생이 나의 노래다.

내 인생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있을까? 천만금을 준들 내 인생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또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사는가? 왜 그리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헤매는가? 왜 그리 많은 사람들이 값진 인생을 허비하는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약과 술과 방탕함으로 추하게 사는가? 왜 그리 많은 사람들이 값진 인생을 모르고 허무한 생을 무작정 사는가?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행복을 두고도 우물쭈물하는가? 버나드 쇼의 묘비처럼 “우물쭈물하다 그걸 줄 알았다”며 자기 무덤에 비석을 세울 것인가? 왜 그리 오래 동안 우물쭈물하며 인생을 버리는가?

내가 제일 잘 났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케이팝 가수가 아니라 구원받은 진실한 기독교도들이다. 보잘 것 없는 인간이 예수만큼 값나가는 존재로 바뀐 사람만 “못난 내가 제일 잘 났다”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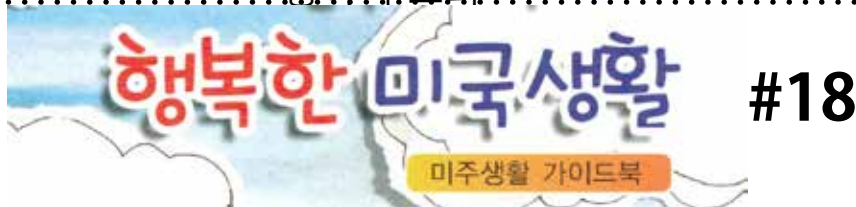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끝에 집 한 채 없는 무일푼의 누더기 걸친 250만 군중들에게 외쳤다. “여수론아 너희는 행복자여라.” 무일푼의 흠레스도 행복자일 수 있다. 현대인들은 그 행복의 비결을 정말 모른다. 자기 정체성이 없고 자기실현의 원동력을 찾지 못해서다. 가수 씨엘도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 ■

백암정담 <12페이지에서 계속>

받아 떠났다. 더러는 머슴을 살다가 이곳 사람들과 결혼하여 정착하기도 했다. 대흥동 주변에서 소를 2백마리나 키우는 축산업자도 어린 시절 머슴살이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험난한 세월을 보냈던 것 같다. 최근 한우값이 좋았을 때 한 마리에 천만 원 이상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가히 인생역전이 따로 없다.

세상이 좋아져 농사일도 기계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 대흥동 인근의 농사짓는 사람들을 보면 승용차, 트럭, 트랙터는 기본이고, 내 논 남의 논 합해서 백마지기 넘게 농사짓는 정도가 되면 그 외에도 다양한 기구를 갖추는 게 보통이다. 그렇게 차가 많아져서 장날 백암에서 주차하기가 꽤 어려워졌다. 식당도 왜 그리 많은지 점점 도시처럼 되 가고 있는 것 같다. 벤츠를 세워놓고 밭일하는 농부를 보는 것이 이제는 대단한 화제 거리도 아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주로 축산업자들이라고 한다. 아무튼 도시와 시골의 차이가 많이 엮어진 것 같다. 1950년대 서울 사람들은 시민증, 그 외 지역 사람들은 도민증을 갖고 다녔는데 시민증은 선망의 대상이었고 도민증은 ‘되민증’으로 불리며 비하의 대상이었다. 이제 주민증으로 통일되어 있고 생활도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 덕분에 직간접적으로 획일화되어 서울 시골이 따로 없어지다시피 되었다. 내 경우 대흥동에 살면서 딱히 불편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분당, 수지에 살 때와 별 차이가 없다. 한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건 도시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시골인심이다. 오래전에 농부들이 들밥을 먹을 때 낫선 사람이라도 지나갈라치면 그냥 보내는 법이 없었다. 그런 풍습이 사라진지는 오래 되었지만 농사라는 단순한 일이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는 건지 아직은 도시 사람들만큼 각박하지는 않은 것 같다. ■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출판한 '견우와 직녀의 행복한 미국생활(부제:미주 생활 가이드북)'은 재미 동포에게 필요한 이민, 교육, 의료, 연금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지는 연속 시리즈로 가이드북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 일리노이주에서 출판된 자료임으로 2018년 뉴멕시코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편집부)

3-4 Health Care



1-4 Health Care

아직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윤춘향은 생리날짜가 아닌데도 약 2주간 자궁 출혈이 있었다. 약간의 통증도 있었지만, 신분문제와 더불어 건강보험도 없는 상태라 몇 주간을 그냥 참고 지냈다. 그렇게 세 달이 지났어도 출혈은 지속되었고 몸 상태도 안좋아 지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교회에서 김직녀와 이야기를 나누던 차에 윤춘향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직녀에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겼다.

“춘향씨, 요즘 어디 안 좋아요? 안색이 안 좋네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춘향은 망설이며 대답한다. “제가 지금 석달째 계속 하혈을 하는데 생리는 아닌 것 같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직녀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걸 왜 이제 이야기해요? 진작 나한테 물어보지 그랬어요.” “저처럼 보험이 없는 사람도 무슨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얼마전에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받은 직녀는 자신있게 말했다.

“그럼요, 보건소로 가시면 되요. 한국 의사나 간호사라 있는 곳은 거의 없지만, 영어를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보건소에서 통역 서비스 하는 곳으로 전화를 걸어서 도와 준답니다. 당연히 한국말 통역 서비스도 되구요.” 춘향은 직녀의 말이 반가웠지만, 이민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신을 생각해 보니 답답해졌다. “저는 영주권도 없는데요.” “걱정 안해도 되요. 상관없어요.” 춘향의 얼굴이 밝아졌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는줄 알았으면 진작 여쭙 볼 께 그랬네요.”

전문가의 한마디 Health Care

■ FQHC (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s)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건강 센터나 클리닉이 연방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곳이며, 육체적 질환뿐만아닌 정신상담 질환까지도 진단을 받고,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FQHC 신분에 관계없이 (단, 광광비자 제외)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한 건강 센터 또는 클리닉이 연방정부 외에도 추가로 다른 단체나 재단에서 특정한 질병에 대해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 무료로 진료 또는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FQHC는 연방정부 보험인 메디케어 (medicare), 주정부 보험인 메디케이드 (Medicaid),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 사보험 모두를 받습니다. 또한 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차등요금제 (sliding fee scale)를 통해, 소득수준에 따라 지불하는 진료와 검사 비용에 차이를 둡니다. 따라서 본인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연간 세금보고서 (1040), 또는 최근 30일간에 받은 급여 명세서 등을 신분증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매년 미국의 연방정부는 소득 수준의 빈곤선 (Federal Poverty Level)을 정하며, 그 액수는 가족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는 2014년도 연방정부가 정한 소득 수준 빈곤선입니다. (2018년도 의 총소득액수를 추가로 표시합니다. 편집부 Ref: <https://www.healthcare.gov/glossary/federal-poverty-level-FPL/>)

가족수	연간 총소득	(2018년도)
1	\$11,670	\$12,140
2	\$15,730	\$16,460
3	\$19,790	\$20,780
4	\$23,850	\$25,100
5	\$27,910	\$29,420
6	\$31,970	\$33,740

<17페이지로 계속>

주를 앙모하는 자 Part 5

김준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쥘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 쥘로다. (시편 137 편, 사로 잡힌 자의 망향의 노래)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 백성들이 세 차례의 암흑기를 경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 가서 요셉이 살아 있을 때는 잘들 지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이 총리대신으로 일했던 것도 잊어 버리고 유대 백성에 대한 태도가 변하면서 마지막 판에는 노예로 사역을 시켰습니다. 430 년 동안 긴 세월을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 역을 겪 었 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울 부 짓는 처참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 서 출애굽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몇 백만 명이나 되는 많은 백성을 몰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시내 광야에서 이끌어 간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애굽 바로 왕 앞에서 열 가지 재앙까지 내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했던 모세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유대 백성들 때문에 큰 고통 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 유대 백성들이 시내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반에야 까지 와서 약 50mile 정도 떨어진 가나안 땅에 열두 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열 명의 한심스러운 실태 보고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더 많은 고초를 감수하며 방황했습니다. 다행이도 모세의 지휘봉을 이어 받은 여호수아는 기발한 전술로 여러고 성을 함락하고 아부라함에게 약속 했던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무려 31 명의 왕들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분열이 심했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사 시대를 거쳐 사울 왕이 40년 (사도행전 13:21) 동안 통치하였고 다윗 왕이 40년 (사무엘하 5:4), 그리고 솔로몬 왕이 40년 (열왕기상 11:42)를 치리 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 지던 솔로몬 왕도 정치적인 야심과 탐심에 말려 후궁이 700명 이고 첩이 300명 이 있었다고 열왕기상 11:3 절은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녕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많은 이방 여인들 때문에 여러 우상숭배가 판을 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얼음장 처럼 차갑기 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열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고

남쪽에는 두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북 왕국은 200년 을 지탱하다가 앗수르 의 침략을 받아 망했는데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이 둘째 암흑기라고 보고 남 왕국이 300년 동안 통치하다가 바빌론의 침략으로 망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셋째 암흑기라고 봅니다. 이 참담한 두 왕국의 운명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바알 신 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고집쟁이 아니면 고집불통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또는 짝 맥 힌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환경에 따라 이런 고집쟁이가 사리 판단을 잘해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일편단심을 가졌다고나 할까요? 제가 이번에 택한 주를 앙모 하는 자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이시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바빌론 땅에 잡혀 가셔도 계속하였습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은 BC 605 년에 남 왕국 유다를 침입하고 유다 왕 여호야김 을 자신의 신하로 삼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유다의 귀족층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다니엘의 나이는 그때 열여섯 아니면 열 일곱이었다고 합니다. 다행 이도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 아사라 가 함께 잡혀가서 서로 의지하며 서로 의논도 하고 하여 그 많은 고달픔을 참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 1장 4-5절에 보면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서 쓸만한 소년을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뽑아서 잡아 갔고 거기서 갈데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과 지혜를 3년 동안 훈련 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 등을 쓰게 하며 왕 앞에 서게 하려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있듯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에게 제안했습니다. 제안내용은 10일 동안 볼모로 잡아 온 종들에게는 채식과 물을 먹게 하고 왕의 소년들에게는 왕의 진미를 먹게 한 후에 잡아 온 종들의 얼굴이 더욱 윤택해 짐을 보고 채식을 허락했답니다. 그뿐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이상과 몽조 를 깨닫게 하는 지혜까지 주셨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궁중에 초대된 고관 대작들은 왕이 베푸는 연회에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며 즐겼다고

<15페이지에서 계속> 행복한 미국생활

그밖의 자세한 문의는 사회복지기관의 건강 상담 부서로 하시면 됩니다.

직녀는 춘향의 밝아진 얼굴을 보니 한결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여기 일리노이는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사를 무료로 검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IBCCP 라는 곳을 통해 일리노이 거주 여성들에게 무료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주는 병원들이 있어요. 혹시 알고 있었어요?”

“어머,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신분 문제가 항상 걸려서요.”

“IBCCP도 마찬가지로 신분에 관계없이 검사를 해줘요. 그리고, 일리노이 뿐만 아니라 타주에서도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전문가의 한마디

IBCCP (Illinois Breast and Cervical Cancer Program)

일리노이 주정부는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건강보험이 없는 모든 여성 (단, 광과비자 제외) 들이 수입에 관계 없이 무료 유방암 (mammogram) 검사와 자궁경부암 (Pap-test)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일리노이 전역에 IBCCP 사무실이 있으며, 이 사무실을 통해 연결된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일차적인 검사를 통해 이상이 나타나면, 그에 따르는 필요한

검사들도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유방과 자궁경부와 관련된 암이 아닌 수술까지도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방암 (breast cancer) 또는 자궁경부암 (cervical cancer) 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넘는 사람 또는 미국 시민권자에 한해, 수입에 상관없이 주정부 보험인 메디케이드 (Medicaid)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과정은 모두 IBCCP 사무실이 도와줍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여 받는 기간이 짧으면 한 달에서 길면 두 달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IBCCP 를 통한 메디케이드는 특별히 약 1-2주일 정도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체하지 않고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또한, 환자의 암 병기에 따라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수술만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는 1년동안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술 후 약을 복용해야 하거나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는 보통 5년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일년에 한 번씩 갱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리 주정부에서 서류를 보내줍니다.

일리노이 뿐만 아닌 타주에서도 유방암 또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지원하는 단체나 재단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무료로 검사해 주는 클리닉이나 병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회복지단체의 건강 부서로 하시면 됩니다.

■

<주를 양모하는 자 16페이지에서 계속>

하는데 유대인들은 잠언 20장 1절에 있듯이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이 희석해서 마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술에 취해서 주정을 부릴 정도로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궁중의 풍습이 결국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는 비극을 초래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니엘의 기막힌 해몽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종말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모로 잡혀간 유대 청년이 하나님이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고 어떤 나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실천하며 살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이없는 정신 착란증으로 우왕좌왕 하는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었던 다니엘의 성품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들의 표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어떻게 바벨론이 망했을까 궁금합니다. 그 마지막 사건이 또한 우리 마음을 흔들어 줍니다. 바벨론 궁중을 살펴 보면 동쪽은 높은 성벽으로 싸여 있어서 외래의 침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서쪽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어서 다리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왕궁으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인 일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은 기명으로 술을 마시며 즐겼답니다. 이렇게 술에 만취된 시간에 바사 왕 고레스는 이런 틈을 이용해서 유프라테스강 상류를 막아 물을 다른 채널로 흐르게 하고 두 탈출병들을 앞세워서 물 없는 강줄기를 따라 왕궁으로 아무 저항 없이 진격해서 점령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었다고 합니다. 왕궁을 지키는 병사들도 만취가 되어 급박한 상황을 잘 판단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킨 고레스 왕은 그 후에 조서를 내려 포로로 잡혀 왔던 유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에스라 1장 3~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세 번의 암흑기를 치렀던 유대 민족은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이룩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

교계 소식

2018년 KUMC 한인총회의 4일

한승우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전도사Programmer/Analyst
UNM Health Science Center

오래만에 타는 Southwest 항공이라 탑승표에 있는 번호를 좌석 번호로 알고 있던 나에게 김기천 목사님께서 차근차근 어떤 방법으로 줄을 서고 탑승을 하는지 가르쳐 주셨다. 목사님 권유로 갑자기 결정한 총회 참석을 위한 여행이었다. 불과 두주 전만해도 총회에 참석할 계획이 없었다. 마침 회사에 작은 프로젝트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이를 동안 늦게까지 일하여 일찍 끝을 내고 총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이렇게 급하게 보내실까? 기대가 되었다.

뉴저지의 뉴와크 공항에 도착한 후 근처 연합감리교회 목사님 한 분이 운전사로 봉사하여 집회장소인 아콜라 교회까지 운전해 주셨다. 다음 3일 동안은 총회를 위해 지역 목사님들과 교인들의 헌신된 봉사를 연속으로 체험하는 현장이었다. 뉴저지와 뉴욕의 목사님들은 운전수로 그리고 지역 교인들은 성가대, 찬양팀 뿐 아니라 300여명되는 총회참석자들을 위한 점심, 저녁 식사준비로 섬기셨다.

「복음으로 희망을 여는 한인연합감리교회」 라는 제목으로 총회는 시작되고 삼일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삼았다. 첫날 저녁 집회 설교는 서부지역 한인 선교구 디렉터인 김웅민 목사님이 한인교회의 역사를 간단히 뒤돌아 보며 마음에 깊이 남는 메시지를 전하셨다. 《밀알이되자. 어떤 특혜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자》. 다음 이틀 동안에 펼쳐질 내용에 앞서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이었다.

다음 날 오전 집회에서는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의 현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100여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간략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위기이다. 과거에 미국교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더 맹렬하게 주류교단에 소속된 한인교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다. 이민 감소와 급격히 주류사회속으로 동화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은 어떤 통계를 통해서가 아니어도 이미 한인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 중에 타인종을 향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간증이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보아 총회에서는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필연적 변화처럼 들려왔다.

오후 시간에는 그룹들로 나누어 외부에 방문 및 참여하는 시간이 이었다. 김 목사님의 권유에 따라 UN Command 라고 쓰여진 종이에 이름을 썼다. 그러나 도착하고 보니 UN 이 아니라 UN 바로 앞에있는 교단 건물이었다. 명칭은 Church Center for UN (CCUN). 감리교 여성그룹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건물이고 1층에 특별히 UN 에서 일하는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들어와 기도할 수 있는 채플이 있었다. 십자가 옆에 유대교, 신도, 불교, 이슬람 종교를 뜻하는 기들이 있어 UN에서 일하는 타 종교인들도 들어와 편하게 사용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참고로 CCUN의 총 운영 책임자는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신 한인이셨고 연합감리교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 가장 비싼 장소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세계 각국의 여성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같은 날 저녁 집회는 동성애 문제, 정확히는 인간 성(性)에 관한 교단의 결정에 대한 현황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 단순히 동성애 문제라고 불리지 않고 인간의 성(human sexuality)에 관한 것이라함은 동성애 외에 다른 여러 성(性)적 관계를 인정하는 여부를 가지고 논의되어서 그렇다. 2016년 연합감리교단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총감독회가 하기로 하였고 총감독회는 A Way Forward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4월 말에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었다.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두 제안들을 보낸다고 했다:

1. 단일 교회 제안 (One Church Model): 다양한 인간의 성적관계를 제한하는 언어를 제거하고, 안수는 각 연회, 그리고 결혼식은 각 교회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모델
2. 세 가지 그룹 제안 (Three Branch Model): 다양한 성적관계 인정과, 중도파, 그리고 반대파가 한 연합감리교단에서 공존하는 모델

이어서 여덟명의 한인목사로 이루어진 대체 계획 특별위원회 (Alternative Plan Task Force)에서 한인연합감리교회에 대한 통계와 자료들을 통해 포괄적인 사역 현황에 대해 발표를 했다. 다음 몇 년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KUMC Connection 이라는 활발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물론 아직 개념화 단계이지만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을 결속시킬



기도문

기도



김숙경 사모
아버커기연합감리교회

길과 진리와 생명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기전에
어느것이 길인지, 어느것이 진리인지 알수도 없고,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알 수 없어
방황하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자녀임을 알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하면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예배하지 않으면,
입술의 예배가 헛되다는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켜 착하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하는 자녀가 되게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때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주의 손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을
덮어주셔서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임재안에서
살아가게하여 하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와, 죄의 습관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삶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은, 그 죄를 통로로 삼아 우리의 삶가운데 들어와
주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하여
멸망의 지옥문으로 우리를 빠뜨리려는 계락을 일삼으니
악한 사탄에게 죄로 인하여 묶이지 않도록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의 시간이 한정 되어 있음을
항상 의식하며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하신 날 정하신 곳, 주의 제단에서
앞으로, 몇 번의 예배를 더 드릴 수 있을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원하오니, 우리로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아와 온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평화 협정을 향한 첫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우리 땅을 밟던때를 생각하면 눈물이납니다
이 일은 주께서 하신 일이오니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일 학교의 놀이터와 주차장 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선교와 새신자를 위한 기도와,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치유를 소원하는 기도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한 기도와
주의 종들과 교회들을 위한 기도가 있아오니
우리의 기도가 주의 보좌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이시간, 저희들 각자 맡은 분야에서 찬양으로, 기도로,
가르키는 자로, 섬김과 봉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행위가, 주님께 인정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수 있는 플랫폼 위주적 발상이며 미래 지향적이라 좋은 건의라
생각이 되었다. 평신도 성도님과 2세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단의 사역들을 엿볼수 있었다.
다음 날 오후에는 이명길 목사님과 허명순 사모님의 가까운
친구되시는 목사님 부부의 환대로 19세기말 한국에서 선교사로
섬겼던 헨리 아펜젤러의 발자취를 걸어볼 수 있었다. 뜨루대학
(Drew University)의 신학교 건물, 아펜젤러 선교사가 예배를
드렸던 가정집 같이 생긴 오래된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뉴저지를 떠날때 기차를 탔던
매디슨 (Madison)역을 방문해 걸어다녔다. 한 세기가 넘도록
같은 장소를 지킨 건물을 둘러보며 안개속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같은 두 분의 개인적인 회상을 맛있는 인절미를 사이에
두고 들었다. 100여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조용히 감탄할 수 밖에 없었다. 갑갑한 일상
같이만 보이는 표면밑에 무서운 기세로 흐르고 있는 천국 복음의
급류를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삼일째 집회의 대주제는 “미래” 였다. 집회 앞쪽의 패널로 시카고
남쪽의 흑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사, 시카고 서쪽에서
성공적으로 전담 EM(English Ministry)목회에서 한인교회로
전환해 사역하는 목사, 샌디에이고에서 20여년 넘게 한인2세
사역만을 해 온 목사, 그리고 뉴욕에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이 나와서 흑인교회와의 회복, (KUMC Connection 을
통한) 네트워킹을 통한 인식전환의 필요, 타인종을 향한 사역

<21페이지로 계속>



2차 세계대전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 문제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용서는 평화를 가져온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끔찍한 행동을 행한 가해자에 대해 어떻게 용서할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피해자는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제 가해자를 용서하고 눈을 감고 싶지만, 전혀 사과를 하지 않는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를 하고 눈을 감을수 있을까? 이것은 이차세계대전시 위안부로 끌려간 많은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문제이다. 그간의 법적 경험을 통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향후 법적으로 할수 있는 대응방안과 이에 관련된 문제점을 간단히 서술해보고자 한다. 황금주님이란 한 한국할머니가 있다. 이분은 과거 항상 무릅과 가슴이 시리고 부었었다. 황할머니는 19살에 일본 군사시설에서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본군에 자원했지만, 사실은 중국의 일본 주둔군 진영에서 위안부로 일하는 끔찍한 삶을 겪게 된다. 위안부라 함은 사실상 성노예 (sex slave)를 지칭하는 것으로 성노예로 끌려간 종군 위안부들은 일본 군사진영에서 일본군의 성노예로 다루어졌고, 의료보험이나 이런 종군위안부일에 대한 일절 보상은 없었다.

그리고 위안부 운영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많은 수의 위안부들을 일본군이 현장에서 사살 하기도 했다. 더 믿기 어려운 사실은 약 20만명에 달하는 위안부중 대략 30%정도만 살아남았다는 통계가 있다.

현재까지 일본정부는 여기에 대해 공식 사과논평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일본정부의 행태는 황할머니의 처절한 과거의 고초를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동 위안부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일본의 위안부 시설운영은 1907년 결의된 헤이그 조약 46조 “가족의 이해와 존중”에 위배된다. 즉, 위안부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기본적인 가족 구성요건을 파탄시켰다는 주장을 할수 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이후 결의된 여러 국제조약에도 위배가 된다. 예를 들어, 이러한 위안부시설을 운영한 일본의 행동은 아동과 여성의 노예금지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White Slave Traffic and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에도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사실상 위안부일이 성노예임을 감안할때 이 협약은 여기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정부가 1965년에도 한국 일본 포괄적 위안부 협의서 (the 1965 Korea-Japan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Claims)에 따라 동 문제가 해결된것이라 보고 있다. 이 포괄적 협약은 개인 위안부들에 대한 어떤 보상도 명기되어 있지 않고, 다른 나라 출신의 위안부 (대만, 필리핀, 중국 및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포괄적 협의서가 개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막는다는 일본측의 법리해석가능성은 타당치가 않다고 판단이 된다. 또한 Gay MacDougall씨 (전 국제연합 소속 전문가/United

Nations Independent Expert on Minority Issue)를 포함한 유수한 국제법 학자들에 따르면 동 포괄적 협약서는 국제법상 개인 위안부의 보상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배제하지 않다는 것이 공통적 의견이다.

이러한 법적인 논리로 위안부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관련된 국제 기구 및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다. 첫번째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제연합 (United Nation)에 직접 동 문제를 제기하고 배상이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위안부 문제는 국제 연합 산하 중재위원회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로 관할권이 넘어가게 된다. 동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국간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것이서,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지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국제연합에 기소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따를것으로 판단이 된다. 두번째는 국제 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정식으로 제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 재판은 개인이 제기할수 없고, 국가가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동 사법재판소가 2차대전이후 설립된 점을 감안해서,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 즉, 국제사법 재판소가 설립되기전의 문제에 대해 기소권을 심의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당연히 일본측 변호사들은 동 문제를 들어 관할권 없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동 사항에 대한 기소에 대한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 미국 법원은 어떨까? 황할머니를 포함한 여러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이 미국 워싱턴 연방재판소에 위안부시설 성노예문제를 일본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장을 내고, 재판을 제기했다. (Hwang v. Japan, 172 F. Supp. 2d 52 (DDC 2001). 동 사건에 대해 미국무부 및 일본측과 황할머니 변호사들간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즉, 미국내 법 (the Alien Tort Claims Act: 외국인들에 대해서 미국내 법에 의거 보호 받을수 있다는 법령)에 의거해서도 일본의 위안부 운영과 위안부에 대한 처우는 잘못되어서 배상이 가능하다는 게 황할머니측 변호사의 논리였고, 미국 국무부 및 일본측에서는 타 국가에 대한 기소는 미국법내 (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에 의거해서 공소권이 없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지루한 법리공판 끝에 황할머니 사건은 미연방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은 미국 법원이 동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Hwang v. Japan, 126 S. Ct. 1418 (2006)). 미국 법원이 또 다시 비슷한 위안부 사건에 개입할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런 국제법상의 법리해석을 가지고, 과거 다른 위안부출신 피해자들도 세계 여러나라 및 국가 법원에 동 문제를 제기했으나 실제로 실효성은 없었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최후의 결정은 일본정부가 내려야 한다. 지금 한국 정부와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 (sincere apology)는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 팔손이 훨씬 넘어서는 위안부 출신 피해자들이 과연 사과없이 보상금만 받는것은 절대로 그분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것이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모두 돌아가시기전에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이 피해자분들은 눈을 감을수 있을까?

황할머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나는 일본황제로 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사과를 원한다고 하셨다. ("I have [never] been given a formal apology from the Japanese emperor . . . I want apology from Japan.") 이제라도 일본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독일정부가 진심을 다해 이차대전당시의 잘못을 반성했듯이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나와야 할것이다. 그리고 배상은 그후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지면 될것이다. 한 국가가 역사상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타국가의 여성들을 성노예로 유린한 사실은 극히 드물다. 일본은 이를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할것인지, 아니면 이차세계대전당시 내세웠던 대동아 공영권을 아직도 그리워 하며 그 잘못된 이상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지는 일본측의 결정이 될것이다.

일본은 해외원조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리더임을 보여왔다.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를 생각할때 지금 독일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처럼 세계는 일본을 인정할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시간을 더이상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일본정부가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용서를 바랄수는 없을것이다. 이젠 이분들이 일본을 용서하고 눈을 감을수 있도록 일본이 나서야 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노 리알리뉴라는 필리핀 출신 시인이 위안부를 위로하는 영문시로 동 기고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these Japanese whose choices were my limbs, mouth and breath.
I never told you, my dear, that every night, I leave my hands beside you
to carry the rest back to the cruelty of their smell, of their mornings:
nine months of war in this hut, my body as food, my life as nothing.

If I tell you how it was, will you hold my hands, surrender to memory?
Soon I will disappear, running naked in a hut, pursued by ropes, shadows.
Nine months: a war for the rest of my life, for the rest of nothing,
telling the rain, the wind, voices of storytellers, ones without pause,

how I disappeared to be naked as rope, naked as its shadow,
in this hut of fears, hands limp and tied, slipping into thoughts:
I told the rain to carry my voice, the wind to hold it without pause.
Now, in my monsoon country, so expectedly, wind uproots memory.....

(This poem (Pantoum: The Comfort Woman) received the 1998 Lucille Medwick Memorial Award from Poetry Society of America. :Editor)■

<19페이지에서 계속>

한인총회의 4일

다양화의 필요성등에 대해 언급하며 한인교회차원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보게 하였다. 저녁에는 1시간 넘게 이어진 찬양과 함께 다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공식적으로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집회 후 늦은 시간에 영어 목회자들의 모임인 넥서스(Nexus) 그룹과 합류되어 같이 뉴욕의 두 명소지(타임스 광장과 911 기념관)에 방문할 수 있었다. 같이 한 목회자들은 꿈과 같이 지나간 과거의 중고등부 사역을 연상케 하였다. 나와 네명의 중년 사역자들을 빼고는 다들 20대 또는 30대되는 젊은 목사나 전도사들이었다. 왠지 그들이 다 전에 가르쳤던 학생들 같아 보였다. 정장을 하신 한국어 목회자분들과는 달리 이 들은 편한 티셔츠와 청바지 옷차림이어서 였다. 사실 나 또한 짐을 작게 한다는 이유로 사 일동안 계속 티셔츠와 청바지에 얹은 잠바 차림이었다. 조금 싸늘한 길거리에서 모여 노점에서 방금 나온 뜨거운 사와르마를 손에 들고 서로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아주 짧은 시간에 뉴욕의 명소지를 방문할 수 있었다. 자원으로 늦은 시간에 주차할 곳도 없는 곳에서 잠깐이라도 관광하라고 길거리를 빙빙돌며 운전을 해주시 지역 EM목회자들과 그들의 진정어린 따뜻한 마음에 자책감과 함께 침묵의 감동이 밀려왔다. 참석자 모두에게 주어진 편지 봉투안에 누구의 서예체로 목양일념이란 글이 있었다. 26년전에 나의 양을 먹이라하고 부르시고 나서 한인 2세 사역을 마음에 품고 신학교로 향했지만 목양일념보다는 한달 한달 내야하는 고지서와 더 치열한 전투를 오래하지 않았나 싶어 부끄러움만이 물려든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역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복음의 발길에서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미래가 보였다.

문득 시인 윤동주의 서시의 한 구절이 생각났다. “모든 죽어가는것을 사랑해야지.” 김웅민 목사님의 첫날 설교또한 “사랑으로 하자” 였다. 오래전의 부르심과 가졌던 초심을 조롱하듯 눈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들. 주님께서 죽어가는 것들을 위해 스스로 죽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인간의 눈 앞에는 절망과 위기의 순간이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불변의 진리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

뉴질랜드 기행문

뉴질랜드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었지만 먼 곳에 있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늘 갖고 있었고 먼 곳에 있는 나라이면서도 가까운 곳에 있는 듯한 친근감을 주는 나라라고 느껴왔다. 왜 친근감을 느꼈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르겠다. 내가 좋아했던 소프라노 가수 키리 테 카나와(Kiri Te Kanawa)가 뉴질랜드 사람인 어서인가? 아니면 6.25 한국전쟁 때에 한국을 도와 3500명의 군인을 보내준 나라여서인가? 뉴질랜드가 스웨덴,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3대 복지 국가 중 하나라는 통계자료 때문인가? 뚜렷한 이유는 없지만,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막연히 친근감을 주는 나라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친구 내외가 뉴질랜드로 크루즈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지 않겠냐는 질문 전화를 받고 길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함께 가자고 결정을 내린 것은 여행비용에 특별 할인 혜택이 있었다는 것도 이유는 되겠지만 평소에도 갖고 있었던 뉴질랜드에 대한 친근감과 호기심이 먼 여행길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뉴질랜드 크루즈 여행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에서 시작됨으로 LA 공항에서 시드니행 비행기를 탔다. 11월 13일 월요일 저녁 11시 40분에 출발해서 15시간의 긴 밤을 보내고 현지 시각 아침 8시 45분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고 날짜로는 수요일이었다. 일부변경선을 넘었으니 화요일 하루는 잃은



셈이다. 우리 일행 네 사람은 택시를 탔다. 아프가니스탄 사람인 운전기사는 시드니 도시인구가 4백70만이 되었고 차량은 점점 늘어나서 길이 잘 막힌다는 등 현지 얘기를 이것저것 해주면서 약 40분 정도 달려서 도시 북쪽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 사이에 있는 항구에 우리를 내려주었다. 항구에는 대형 크루즈선, 골든 프린세스(Golden Princess) 호가 정박해 있었고 크루즈 직원들은 승객이 가지고 온 짐가방들을 받아 정리하면서 탑승자 체크인을 돕느라고 바빴다. 승선하고 나서 곧바로 식당으로 가서 점심을 먹고 나니 긴급 비상시 하선 요령을 의무적으로 강의받아야 한다고 해서 극장에 모여서 강의 듣고 다시 객실에

이경화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돌아오니
운반해준
가방이
객실까지
와 있었다.
짐 정리하고
나서 갑판
위로 나가보니
배는 벌써
항구를 벗어나



뉴질랜드를 향해 항해하고 있었다. 배가 워낙 조용하게 움직여서 배 떠나는 것과 항해 중인 것을 전혀 의식 못 했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사이에 속한 바다를 타스만 해(-海; Tasman Sea)라고 하는데 이 바다를 건너가는 데 이들이 걸린다. 이곳 사람들은 타스만 해 바다를 별명을 붙여 '더 디치'(The Ditch)라고 부르기도 한다. 두 나라 사이에 있는 폭이 1200마일 되는 넓은 바다를 작은 디치, 즉 도랑(또는 개천)에다 비유하는 표현이 재미있어 보인다. 지리적으로 1200마일은 먼 거리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두 나라가 가까운 사이로 느끼는 까닭에 이런 말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다. 두 나라가 아주 가까운 사이란 것은 국기에서도 나타난다. 두 나라 국기가 너무나 닮았다. 두 나라 국기가 모두 영국기의 유니언잭을 코너에 두고 파란색 바탕에 십자 성을 의미하는 별이 있는데 노란 별이 4개면 뉴질랜드기이고 하얀 별이 6개면 오스트레일리아 기이다. 뉴질랜드에서는 두 나라 국기가 너무 비슷하다는 이유로 국기를 다시 만들자란 제안이 나와 정부에서는 다섯 가지 후보 디자인을 놓고 국민 투표에 부쳤다고 한다. 영국 여왕을 모시는 영 연방국이긴 하지만 식민지 시대를 기억하게 하는 유니언잭을 없애고 캐나다 국기의 단풍잎처럼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식물인 은빛 고사리 잎으로 디자인한 국기가 후보로 선정됐는데 최종 투표 결과 지금의 국기를 고수하자는 표가 57%가 되어 국기 변경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타스만 해를 항해하는 이들 사이에 시간대를 두 번 지나기 때문에 시곗바늘을 두 번씩 맞추어야 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크루즈 배 안에서

..... 제공하는 여행지 안내 세미나를 듣기도 하고 갑판을 두어 바퀴 걷는 운동도 하고 객실에서는 뉴질랜드 여행안내 책을 읽으면서 지루한 줄 모르고 이틀을 보냈다. 아내는 친구와 함께 탁구를 하면서 땀을 빼기도 했고 그러는 사이 우리 남자들은 아래층 도서관에 가서 매일 나오는 새로운 스토쿠 퍼즐 게임지를 받아 머리운동도 했다. 사흘째 되는 이른 아침에 배는 드디어 뉴질랜드의 남섬의 해안에 있는 피오르드랜드(Fjordland) 국립공원에 도달해서 관광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은 뉴질랜드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이며 14개의 피오르드(fiord: 노르웨이어로는 피오르 fjord)가 있다. 피오르드는 빙하로 만들어진 좁고 깊은 협만(峽灣)을 말한다. 옛날 빙하로 말미암아 생긴 U자 모양의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찬 것이다.

밀퍼드 사운드(Milford Sound)는 공원에 있는 여러 피오르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피오르드인데 바다에서 15km 정도 내륙까지 들어가며, 좌우 양면이 1200m 이상의 절벽으로 싸여있고 많은 폭포가 절벽 면을 따라서 계단식으로 흘러내린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의 하나라고 한다. 우리를 태운 배는 느린 속도로 조심스럽게 피오르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잠시 머물더니 U Turn을 해서 다시 바다로 나와 해안선을 따라가다가 또 다른 피오르드인 다우트풀 사운드(Doubtful Sound)를 보여주고 나서 섬의 남쪽 해안을 돌아 나흘째 아침에 섬의 동쪽 해안 남단에 있는 더니든(Dunedin)이란 도시에 도착해서 기항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리 일행은 배에서 내려 뉴질랜드 땅을 처음 밟았다.

더니든(Dunedin)은 스코틀랜드의 문화가 짙은 도시로 남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고, 뉴질랜드 안에서는 6번째가 되는 인구 12만5천 명의 도시이다. 뉴질랜드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대학이 이곳에 있는 오타고(Otago) 대학교(1869년에 설립)이고 뉴질랜드에서 제일 먼저 일간 신문이 발행한 곳도 이곳이다. 뉴멕시코의 산타페가 민속예술 분야의 UNESCO 지정 창조의 도시인 것처럼 더니든은 문학 분야에서 UNESCO 창조의 도시로 지정받은 도시이다. 1860년대에 뉴질랜드에서 제일 부유하고 발달한 도시였는데 이런 발전이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 이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된 까닭이다. 많은 사람이 몰려온 까닭에 인구가 급증했다. 금광의 채굴이 후에 차차 줄어들면서 도시경제가 침체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 대책으로 더니든시는 교육에 투자를 강화해서 교육도시로 발전시켜 현재 도시 인구의 1/5이 대학교 학생이라는 특징을 갖춘 교육 도시가 됐다.

도시 중심에 있는 옥타곤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버스를 타고 가서 관광했다. 이곳에 있는 더니든 기차 정거장은 1904년에 건축한 르네상스 스타일의 건물로 관광객에 의해 가장 많이 사진 찍혀지고 있는 시계탑이 있는



인상적인 건물이었다. 오타고 정착민 박물관(Ortega Settler Museum)은 뉴질랜드에 있는 박물관 중에서도 우수한 사회역사 박물관으로 이 지역의 발전과정을 잘 보여주는 박물관이다. 원주민 마오리족(Maori Tribe)의 역사와 스코틀랜드 출신의 개척자들 생활, 금광 채굴자로 온 중국인에 관련 전시물이 볼만했다. 언덕 위에 있는 First Church로 불리는 장로교회도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다. 180ft 높이의 뾰족 탑이 특징인데 마침 보수 공사 중이어서 교회건물 내부를 볼 수가 없었다. 시내 거리를 걷다가 서점을 들어가 보았다. 고서와 신간 서적을 함께 판매하는 서점이었는데 고서를 찾아 놓은 서가로 가서 보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책이 바로 루 월리스가 쓴 '벤허'('벤허' 영화의 원본) 책이었다. 월리스가 뉴멕시코 지사로 있을 때 이 책을 썼던 것인데 뉴멕시코에서 온 사람이 뉴멕시코 사람이 쓴 오래된 고서를 뉴질랜드 더니든에서 만난다는 것은 작은 기적이 아니냐고 생각했다.

크루즈 선은 매일 저녁이 되면 출항해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서 아침에는 새로운 곳에 도착해서 승객들을 내려놓고 관광하게 해주었다. 큰 도시가 아닌 곳은 크루즈선이 댈 수 있는 항구가 없으므로 해안에서 적당한 거리에 정박하고 크루즈 선 옆에



달고 다니던 텐더(Tender)라고 하는 부속선(附屬船)을 여러 척 동원해서 승객을 육지와 배 사이를 왕래하도록 종일 운행했다. 한가지 불편한 것이 있다면 아침 시간에 많은 승객이 한꺼번에 하선하는 게 불가능하므로 객실 번호에 따라 하선하는 시간을 배정해서 매 10분마다 100명 정도씩 텐더의 운행 스케줄에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 불편한 것 이긴 했지만 일단 아침 한두 시간 지나 대부분 승객이 하선한 뒤에는 임의 대로 육지와 크루즈 선 사이를 왕래할 수 있어서 불편이 전혀 없었다. 제2의 기항지는 프랑스인 개척자들이 정착했던 조용한 아카로아(Akaroa)라는 마을이었고 이어서 3번째 기항지는 남섬의 가장 북쪽에 있는 픽톤(Picton)이란 곳이었다. 북섬에 있는 수도인 웰링턴과 수로로 연결되는 항구마을이고 1번 고속도로의 시작지점이기도 하다. 4번째로 방문한 곳은 북섬에 있는 나피어(Napier)란 작은 도시인데 이곳에는 뉴질랜드에서 제일 큰 수족관이 유명하다. 수족관 안에 있는 움직이는 보행 판에 올라서 있으면 유리 터널 속으로 이동시켜 주어서 물속에 들어간 것 같이 느껴지며 수많은 열대어와 상어를 코앞에서 볼 수 있었다. 전시장 안에는 나라 새이기도 한 키위(Kiwi) 새도 있는데 이 새는 겁이 많고 날개는 있지만 나르지 못하고 밤에만 활동하는 새여서 전시장을 어둡게 해 놓아 잘 볼 수가 없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직원이 모형을 들고 밝은 홀에 나와 키위에 관해 설명을 해준다. 키위는 뉴질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새인 까닭에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인지 뉴질랜드 사람을 키위라고 별명 지어 말하기도 한다. 뉴질랜드 공군 전투기에 표시된 국적 마크를 보면 파란색 원형 링 안에 키위 새가 그려져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공군기의 국적 마크도 비슷한데 키위 새 대신 캥가루가 그려져 있어 두나라가 모두 그나라 특유의 동물을 상징적인 마크로 쓰고 있다.

5번째 방문한 곳은 타우랑가(Tauranga) 라고 하는 인구 13만 명의 상업 도시이며 휴양지로 유명한 도시였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수출입이 많은 항구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수출되는 주요품목 중에는 목재와 농산물로 아부코도, 키위(Kiwifruit) 과일을 들 수가 있는데 키위 과일의 원산지는 뉴질랜드가 아닌 중국이란 사실을 여기 와서 알게 되었다. 20세기 초에 중국에서 가져온 종자로 뉴질랜드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초기에는 ‘차이니스 구스베리’란 이름으로 상품화되었다고 한다. 과일 모양이 뉴질랜드의 나라 새인 키위와 닮았다 해서 후에 키위로 이름 지어졌고 지금은 뉴질랜드의 과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

타우랑가 시내 구경을 하다가 일본식당을 발견하였다. 식당 이름이 “When SUSHI Met SALLY”였다. 마침 때가 점심을 먹어야 할 때여서 우동을 먹자고 식당에 들어갔다. 스시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인데 주로 To-Go 전문으로 디자인된 식당이었다. 우동이 나와서 식사를 하려는데 주인이 우리가 한국말 하는 것을 듣고 한국인이냐고 물었다. 자연히 여러 가지 뉴질랜드에 관한 얘기를 많이 나누는 계기가 됐다. 뉴질랜드 골퍼로 유명한 한인 리디아 고(Rydia Ko)에 관한 얘기도 나누었다. 그의 가족은 오클랜드 부근에 살고 있는데 이곳을 방문하기도 한다는 얘기를 해주었다. 한국이름은 고보경인데 지금은 한국에 가서 고려대학에 진학했다고 들었다. 식당 주인은 타우랑가에서는 한국 손님을 만나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고 하면서 후식 과일을 대접해 주었다.

타우랑가에 오니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타우랑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곳에 타우포란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사는 배리 프로렌스-베넷이란 사람이 생각이 난다. 직접 만난 일은 없지만, 이메일로 알게 된 최초의 뉴질랜드 사람이다. 8년 전 2009년 12월 31일 아침이었다. E-mail 하나가 왔는데 뉴질랜드에서 보낸 메일이었다. 내용을 번역하면 이렇다.

12살 되는 저의 딸이 저의 생일 선물로 2010년 종이비행기 접기 달력을 제게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항공기 조종사(파일럿)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딸과 함께 종이비행기를 접어 보니 달력이란 상품 속에 들어있는 정성과 솜씨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뉴질랜드)는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새해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나라입니다. (이메일을 쓰고 있는 지금 이곳의 우리는 2010년을 맞이한 지 이제 55분밖에 안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는 아직 2009년에 있습니다마는) 1월 1일에 해당하는 달력의 종이비행기를 접어서 약 20분간 딸과 함께 비행기를 날리며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재미있는 상품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딸이 아빠를 위해 멋지고 매력적이고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이런 선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뉴질랜드 타우포에 사는 배리 프로렌스-베넷.

종이비행기 달력이란 상품을 만든 것은 덴버에 있었던 아코드 출판사이고 나는 종이비행기 디자인을 했을 뿐 출판사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노력의 결과로 상품화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적어 답례의 메일을 보냈었다. 그리고 메일을 출판사 앞으로 전송해 보낸다는 글도 적어 보냈었다. (종이비행기 달력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계속 출판됐고 2019년도 출판을 예정되어있다. 출판사 이름이 Andrews McMeel Publishing으로 변경됐다)

다음 날 기항지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인 오클랜드(Auckland)였다. 2017년 통계에 의하면 도시 인구가 153만이라고 한다. 뉴질랜드 전체인구의 32%가 이 도시에 사는 셈이다. 도시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반면 대중교통이 어려워지고 집값이 오르는 등 부정적 문제도 있으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살기 좋은, Quality of Life 3위의 랭킹을 얻은 도시라고 한다. 도시 인구의 59%가 유럽계이며 23%가 아시아계, 15%가 태평양계, 11%가 마오리 원주민이라고 한다. 한국인도 많이 산다고 한다.

크루즈선이 정박한 항구위치가 오클랜드 도시 중심가 바로 옆이어서 아주 편리했다. 퀸스트리트(Queen St.)은 도심지역에 있는 변화가 중 하나인데 서울의 명동 길거리가 생각 날 정도로 변화한 거리였다. 몇블록 걷고는 언덕 위에 있는 오클랜드의 관광명소 1번이라 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Sky Tower)로 찾아갔다. 남반구에서 가장 높은 타워라는 타이틀을 지키고 있는 타워인데 매일 평균 천 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온다. 승강기를 타면 40초 만에 328m 타워의 꼭대기 전망대로 올라간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대형 크루즈선이 장난감 배처럼



보인다. 수많은 고층 건물들이 뽀뽀이 찬 시내 모습이 도시의 다이내믹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듯하다. 북쪽 섬으로 연결하는 하버 브리지 다리, 남쪽으로는 마운트 에덴(Mt. Eden) 산,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넓은 도시 풍경은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파노라마였다.

뉴질랜드 여행에서 마지막 기항지는 베이오브아이랜드(Bay of Islands), 섬이 많은 만(灣)이란 곳이었다. 북섬의 북쪽 해안에 있는 144개의 작은 섬들이 들쭉날쭉한 해안선이 500마일이 되는 만 속에 들어 있다. 영국인이 제일 먼저 들어 온 곳이며 마오리 원주민이 영국 깃대를 잘라버린 일로 일어난 전쟁이라 해서 깃대 전쟁(Flagstaff War)이란 별명 붙은 전쟁이 몇 차례 있었고 1840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주일예배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시간: 오후 12:00 p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5:30am(mon-sat)
 금요일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 (626)272-1042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일예배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사목회장
 이성희 요한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금요일기도회(금,저녁)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교회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00pm 수요일모임 11:30am
 금요일예배: 7:30pm
 새벽기도회: 6:00am(월-금)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a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년 마우리 추장과 영국 총독이 조약을 맺은 와이탕이(Waitangi)
 조약이 이루어진 곳이 이곳 파이히아(Paihia) 마을이었다. 1834
 년 영국 선교사에 의해서 최초로 마오리 언어로 된 성경을
 인쇄한것도 이곳이었다. 마오리 원주민에게 참정권(투표권)을
 준 것이 1867년이란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일찍부터 원주민과
 영국인 사이에 갈등을 없애고 공존 관계를 잘 만들어나간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 것도 1893년이다. 미국이나
 영국보다 25년을 앞서서 실시했다. 뉴질랜드가 정식 독립국이
 된 것은 1947년이니 개발국가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국가 중
 하나로 볼 수 있겠는데 민주 정치 근대화는 영국이나 미국보다
 앞질러 시행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라고 한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우리는 파이히아 마을에서 열리고 있는 미술 공예품 전시장을
 보고 크루즈선에서 만난 텍사스주에서 오신 한국인 내외를
 만나 사진도 함께 찍고 다시 배로 돌아왔다. 크루즈 선은 이틀을
 항해해서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도착해서 뉴질랜드 여행을
 마쳤다. 시드니에서 도시 관광을 하루하고 다음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뉴질랜드는 먼 곳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나라였으나 이번 여행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만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부러운
 나라 중 하나가 됐다.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알버커키 Albuquerque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주택용자 Loan Officer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김미경 Mikyong Kim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3900 Vassar Dr. NE (Office 505-855-0586) (cell 505-379-2944) mkim@bokf.com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275- 9021)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부동산 Realtors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Salon 47(황경희 Kay Latham) 5850 Eubank Blvd., NE (505-225-4983)	치과 Dental Clinic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건축/페인트 Painting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47 (505-296-2335)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세탁소 Dry Cleaners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공인회계사 CPA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Nob Hill Barber Shop (Sunny 박선희)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태권도 TaeKwonDo
Asian Pear 8101 San Pedro Dr.NE, Ste D (505)766-9405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Dynamic taekwondo acad- 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리커스토어 Liquors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한의사 Acupuncture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 899-0095)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자동차정비 Auto Repair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의류 Clothes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Jasmine Thai & Sushi House 4320 The 25 Way, NE Suite 300 (505-345-0960)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교회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 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 9400)	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화랑 Gallery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 296-8568)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Dot Clothing Co 9601 Sage Rd. SW ABQ 87121 (505) 831-8812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Park Fine Art Gallery (박영숙): 323 Romero St. Suite 6 Old Town, Albuquerque NM87104 (505-764-190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Fashion USA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 331-9584)	화원/원예 Nursery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p>사진관 Photo</p> <p>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p>	<p>라스쿠르세스 장로교회: 200 E. Boutz rd, Las Cruces, Las Cruces, NM 88001 전화: (915)329-3451</p>	<p>버나리요/벨렌/ 보스키팜 /로스루나스 Bernalillo/Belen/Bosque Farms'Los Lunas</p>	<p>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p>	<p>백화점 Mart</p> <p>T-Mart 120 W 21st St. Clovis, NM 88101 (575)218-3764</p>
<p>중재서비스</p> <p>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p>	<p>병원 Clinic</p> <p>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p>	<p>식당 Chinese Restaurant</p> <p>Bamboo Express 143 Highway 314 SW Los Lunas NM87031 (505) 866 6888</p>	<p>베이커리 Bakery</p> <p>베이커리 B&B(양성권) 38 Burro Alley Santa Fe, NM87501 (213)369-1604</p>	<p>식당 Restaurant</p> <p>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p>
<p>단요가 Dahn Yoga</p> <p>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p>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p>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p>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p>	<p>식품 Korean Grocery</p> <p>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p>
<p>라스베가스 Las Vegas</p>	<p>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p>	<p>산타페 Santa Fe</p>	<p>교회 Church</p>	<p>화밍톤 Farmington</p>
<p>치과 Dentist</p> <p>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p>	<p>건강식품 Health Food</p> <p>인성내츨: Los Alamos (505-662-9681)</p>	<p>손톱미용 Nails</p> <p>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p>	<p>교회 Church</p> <p>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626)272-1042</p>	<p>상점 Store</p> <p>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p>
<p>라스크루세스 Las Cruces</p>	<p>미장원 Hair Salon</p> <p>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p>	<p>변호사 Law Firm</p> <p>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p>	<p>교회 Church</p> <p>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p>	
<p>공인회계사 ACC</p> <p>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p>	<p>교회 Church</p> <p>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626)272 -1042)</p>	<p>변호사 Law Firm</p> <p>Greg Camp 변호사 505-231-6848 451 Cerrillos Rd. Santa Fe, NM87501 (아내:이윤정 한국어통화 405-655-2599)</p>	<p>교회 Church</p> <p>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p>	
<p>카페/ 선물 Cafe/Gift</p> <p>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p>	<p>리오란초 Rio Rancho</p>	<p>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p> <p>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p>	<p>교회 Church</p> <p>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p>	
<p>교회 Church</p> <p>라스쿠르세스 침례교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972) 822-1239</p>	<p>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p> <p>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p>	<p>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p> <p>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p>	<p>교회 Church</p> <p>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p>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18년 5/6월호

발행일 : 2018.5.12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위원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505)341-0205

광야의 소리7-8월호 원고는 6월25일까지 받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독자 여러분의 좋은 글 또는 사진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 정치적인 글은 사양합니다.)

KELLY LIQUORS 구인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켈리 리쿼에서 일하실분을 찾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토,일,월,화 12:00-9:00PM
(남, 여 상관없음) 연락처: 505-470-5559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l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앨버커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 (505)352-5152



근무시간: M-F 7:00am-6:00pm (토,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앨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5
Tel: 505-988-4476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

Lunch
11:30-2:30 Mon-Sat

Dinner
5:00-9:30 Mon-Thur
5:00-10:00 Fri-Sat
12:30-8:00 Sunday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

505.883.9400